



남북한의 한국사 인식

2023



## 마주하는 우리역사, 남북한의 한국사 인식

■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 9월 27일(수) / 매주 수요일 14:00 - 16:00

■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 ■ 일정

연번	강사명	교육일	강 의 주 제
1	서영대	8월 16일	[마주하는 고대사] 북한이 바라본 단군과 단군릉
2	김현숙	8월 23일	[마주하는 삼국시대]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
3	장정수	8월 30일	[마주하는 중세사] 북한이 생각하는 병자호란
4	남광규	9월 06일	[마주하는 근대사] 신미양요에 대한 남북의 시선
5	이하나	9월 13일	[마주하는 현대사] 남북 미디어 속 인천상륙작전
6		9월 20일	답사 (강화, 교동 일원)
7	홍영의	9월 27일	[우리의 역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목차

강의1	[마주하는 고대사] 북한이 바라본 단군과 단군릉 .....	07
	서영대(인하대학교)	
강의2	[마주하는 삼국시대]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 .....	21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강의3	[마주하는 중세사] 북한이 생각하는 병자호란 .....	41
	장정수(동북아역사재단)	
강의4	[마주하는 근대사] 신미양요에 대한 남북의 시선 .....	65
	남광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강의5	[마주하는 현대사] 남북 미디어 속 인천상륙작전 .....	75
	이하나(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강의7	[우리의 역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77
	홍영의(국민대학교)	





북한이 바라본 단군과 단군릉

서영대(인하대학교)





# 북한이 바라본 단군과 단군릉

서영대(인하대학교)

- 강의 주제; 북한에서는 단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의문; 같은 사료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어떻게 남북한의 단군 이해가 다를 수 있는가?
-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목 차

1

전통시대의 단군 인식

2

북한의 단군 인식 1;  
단군릉 발굴 이전(1960~1990)

3

북한의 단군 인식 2;  
단군릉 발굴(1993) 이후

4

북한 단군 인식의 문제점

5

단군 이해의 방향

3

## I. 전통시대의 단군 인식

1. 단군에 대한 기본 자료; 13세기부터 확인되고 있음

┐『삼국유사』유형; 일연(1281~1289 무렵)

└『제왕운기』유형; 이승휴(1287, 충렬왕 13)

└『응제시應製詩』유형; 권근(1396) ⇨『동국통감』



## 2. 단군 인식의 변화

① 단군 = 국가의 시조

○ 신화적 존재; 『삼국유사』, 『제왕운기』

- 부모는 신적 존재(환웅+웅녀, 단수신+환웅 손녀)

- 단군의 통치 기간; 1500년

- 수명; 1908세

- 최후; 아사달 산신(불사의 존재)



- 역사적 존재; 『응제시』, 『동국통감』 등 조선시대 사료
-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건국; 당요 25년 무진년
- 단군의 후손이 대를 이어 통치(1500년)
- 국조로서 국가에서 제사; 평양 숭녕전, 구월산 삼성사

### 강동 단군릉



### ② 단군 = 민족의 시조

- 등장; 한말- 민족적 위기 타개의 일환, 민족 단결의 구심점
- └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혈손); 단일민족 의식
- └ 단기 사용(BC. 2333),
- └ 개천절 기념; 음력 10월 3일
- └ 백두산=민족의 성산
- 단군=역사의 유구성, 민족의 단일성 상징

### ※ 일제의 단군부정론



## Ⅱ. 북한의 단군 인식 1; 단군릉 발굴 이전

### ○ 1960년대부터 논의 본격화

-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한국사 체계화의 일환
  - 6.25 이후 국가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 정당성 입증에 이해
    - ※ 세계사적 발전법칙;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발전
    - ※ 원시공산제 → 고대노예제 → 중세봉건제 → 근대자본제 → 공산제
  - 고대노예제 사회의 존재 여부 및 시기를 둘러싼 집단토론회

- 단군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사회 단계 반영
  - 원시사회의 마지막 or 고대국가 진입
  - ※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1933)



- 고조선의 역사적 실재 인정(↔ 식민사학의 고조선 부정)
  - 건국 시기; BC.8~7세기
  - 중심지; 요하 동쪽 개평(※ 웅악진熊岳鎮, 웅악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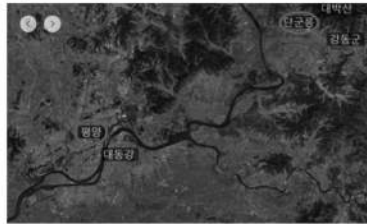


### Ⅲ. 북한의 단군 인식 2; 단군릉 발굴 이후

1. 1993년 1월 22일~2월 5일 발굴  
1993년 10월 2일 「단군릉발굴보고」 발표  
- 김일성 교시에 의해 발굴

#### 2. 단군릉(묘)

- 위치; 평양 동쪽 40km, 강동군 대박산 기슭
- 1481년(성종 12) 『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나옴  
- 대총(大塚); 諺傳檀君墓
- 1936년 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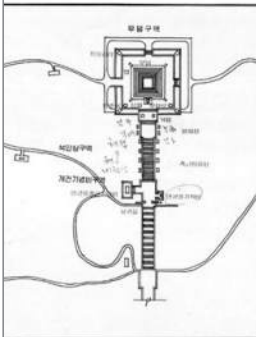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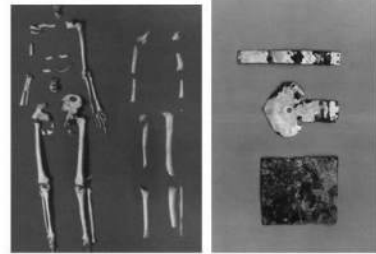
### 3. 발굴 성과

- 구조형식; 무덤안길+무덤칸의 석실봉토분(273x276x160cm)
- 유물; 남녀 인골 조각, 금동관 파편, 각띠 파편, 관못, 벽화?
- 연대; 5,011±267(전자상자성공명측정법으로 54회 측정)

→ 단군의 무덤임을 확정

### 4. 개건; 1993년 9월 27일~1994년 10월 11일

- 면적; 13만 5천평
- 구역; 개건기념비+석인상+중심구역
- 무덤; 9층의 피라미드식(55x55x22m)  
1994개의 화강암



5. 평양 일대 고고학적 조사

- 성곽; 강동 황대성 등
- 도시유적
- 고인돌; 평양 사방 40km 내 14,000여기 조사
- 제단; 평양 화성동 유적
- 다양한 유물 발굴과 재해석

※ 비파형동검, 조롱박형 단지는 평양에서 시작



6. 3 차례의 학술회의; 참가자 범위 확대

7. 「단군; 전조선의 시조, 역사적 인물

조선민족의 원시조

└ 전조선 건국; BC.3000초~ BC.1500년

└ 전조선 중심지; 평양

\* 평양은 고조선의 중심지=민족의 발상지이며 민족의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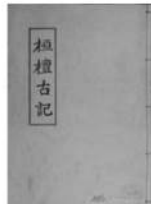
\* 자료 범위 확대; 구전설화, 지명, 비서(秘書=재야사서) 활용

- 『규원사화』(1675), 『환단고기』(191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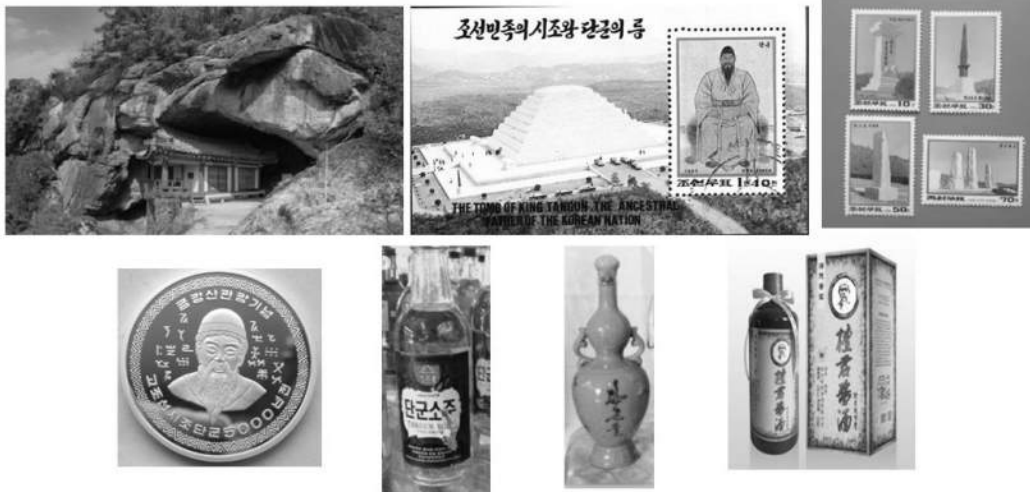
\* 단군전설 → 단군신화

8. 대동강문화론;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함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문화(BC.4000년)
- 신지문자, 천문학, 금 세공
- 세계 5대문명의 하나로 중심지는 평양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과 동시기)



9. 단군 유적 정비  
10. 단군 봄



10. 이후 북한의 역사 서술 크게 변화; 연대 상향 등  
○ 단군; 사회발전 단계 → 역사적 인물, 민족의 시조  
건국; BC.7~8C → BC 30C 초  
중심지; 중국 요동 → 평양(\* 영역은 같음)  
○ 단군조선(전조선) 강조





## IV. 북한 단군 인식의 문제점

### 1. 단군릉에 대한 의문점

- 단군릉의 불확실성; 1456년(세조 2)- 양성지 건의 이후  
단군은 불사의 존재이므로 무덤 없음
- 무덤의 구조; 고구려식- 고구려 개축설로 방어
- 고조선 묘제=고인돌; 왜 고인돌이 아닐까?
- 연대측정법; 전자상공명측정법의 문제(탄소연대측정법)  
※ 5011년 전의 인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군?
- 발굴 시기; 발굴을 꺼리는 겨울
- 민족 주체성 강조 ↔ 국가는 착취기구



### 2. 북한의 의도

- 대내외적 위기
  - 소련의 해체(1986), 동구권 붕괴(1989), 독일 통일(1990)
  - 한러수교(1990), 한중수교(1992); 국제적 고립
  - 인민경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 실패
- 정신 승리
- 근래에는 단군에 대한 관심 퇴조?

※ 고구려 건국 연대; BC.37(갑신년) → BC.277년으로 소급  
고조선 → 고구려 역사 계승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동명왕릉비 2중; 윤회, 1454년(세종 2) 『세종실록지리지』



## V. 단군 이해의 방향

### 1. 남북한의 차이

\* 남한 내에서도 차이 많다- 갈등의 요인

	남한	북한
고조선의 중심지	요동	평양
고조선 성립 시기	BC.12~10C	BC.30C



### 2. 단군의 한계; 현대와 맞지 않는 점

- 신화적 존재 ↔ 비합리적, 비과학적
- 폐쇄적, 배타적(단일민족) ↔ 현대는 지구촌 사회, 복합사회
- 국제관계에서는 정체성에 도움 민족 ↔ 민족 내부 모순 은폐

### 3. 단군의 필요성

- 단군은 민족적 위기 때마다 큰 역할; 단일민족 의식
- 한국인; 단군의 실재 및 민족적 의미 긍정- 북한과 통합

우리 조상으로 숭배해야 한다	75.4%
우상숭배이다	13.7%
모르겠다	10.9%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며 단일민족이다	87%

(1985년도 갤럽조사)

- 단군의 재해석; 포용적(홍익인간), 다문화

## 참고문헌

-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
-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토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94
- 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1995
- 이형구 편, 『단군과 고조선』, 살림터, 1999
- 박득준,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1999
- 장우진, 『조선민족의 발상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 『단군릉과 고대성곽 및 제단』, 진인진, 2009
- 『대동강문화』, 진인진, 2009
- 권승안,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마주하는 삼국시대]

#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 목 차

1. 들어가며: '고구려'의 역사적 의미
2. 고구려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
4. 나오며: 역사인식 차이, 어떻게 극복하나?

## 키워드

유물사관, 민족사관, 주체사관, 조선민족제일주의, 실증주의  
『조선전사』, 『조선전사(개정판)』, 『조선단대사』  
구려, 고구려, 압록강 중류유역 지역연맹체  
고대,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900년 유국설  
평양, 낙랑군과 낙랑국

## 1. 들어가며: '고구려'의 역사적 의미

- 남한  
우리나라 고대 삼국 중 정치와 사회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나라
- 북한  
고조선의 계승자로서 민족통일을 이룩하려 한 나라

## 2. 고구려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 1) 남한의 역사인식 및 방법
  - 민족사관과 실증주의
  - 동아시아사
  - 탈민족사관
  - 개별적 연구 : 다양한 견해 공존



## 2. 고구려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 2) 북한 역사학의 이론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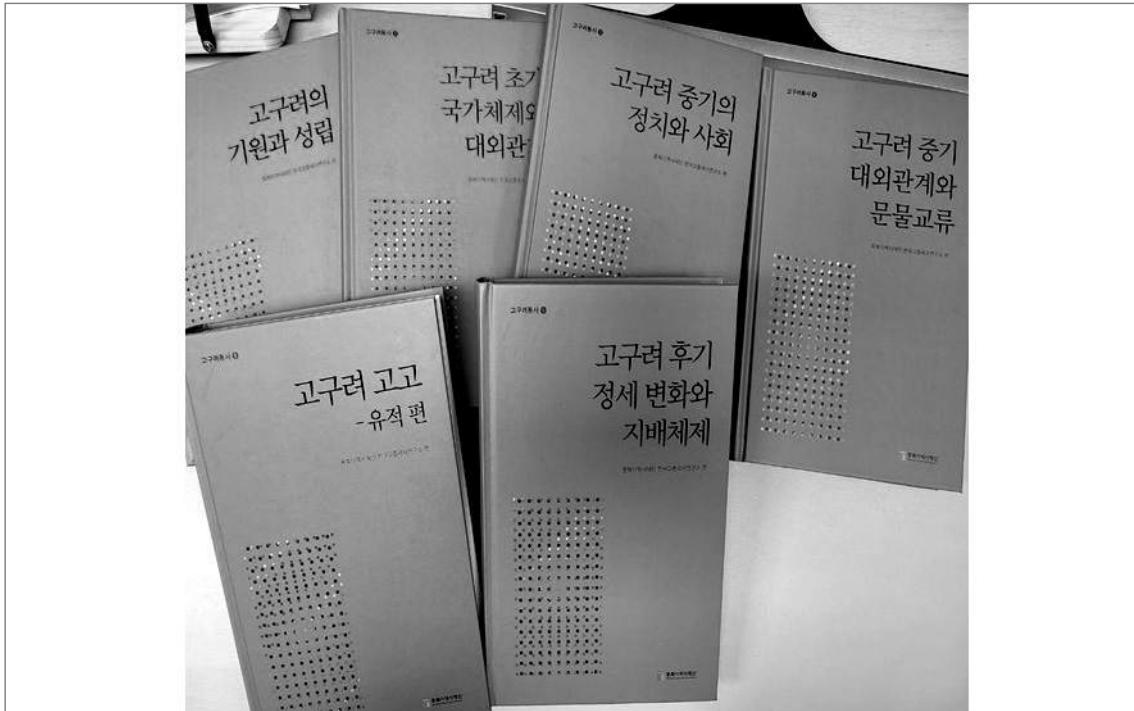
- 유물사관
- 주체사관
- 조선민족제일주의
- 集體研究 : 치열한 집단 논쟁 거쳐 정설을 정하고, 이후에는 정설을 보강하는 연구만

##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

### ※ 남북한 고구려사 연구 비교 자료

#### ○ 남한

- 관련 저서와 논문 등
-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강좌 한국고대사 등
- 『고구려통사』10권 (2020~2024, 동북아역사재단)



## 남북한 고구려사 연구 비교 자료-북한

-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개정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손영종, 1990, 『고구려사1』, 손영종, 1997, 『고구려사2』, 손영종, 1999, 『고구려사3』,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 허종호, 손영종 등, 2006~2008, 『조선단대사』 고구려사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북한의 고구려사 관련 대표 서적

-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1979년~1983년, 주체사관에 입각, 광복 이후 당시까지의 '조선사'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정리, 총34권
  - 삼국시대를 다룬 것은 총 2권: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 『조선전사』4 중세편 백제 및 전기신라사
- ⇒ 고구려사는 독립된 한 책으로 서술 분량이 백제, 통일 전 신라, 가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개정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고구려 중심 서술은 동일,
  - 고구려 건국 시기를 기원전 277년으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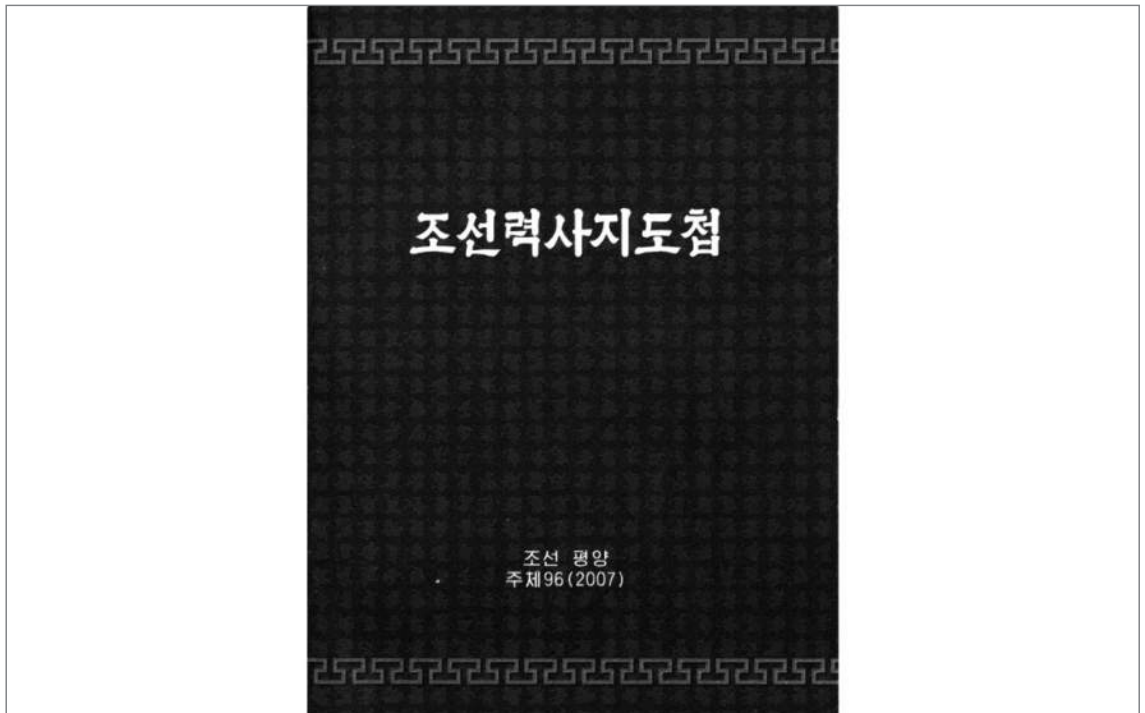
## 북한의 고구려사 관련 대표 서적

- 손영종, 1990, 『고구려사1』, 1997, 『고구려사2』  
1999, 『고구려사3』,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 삼국 중 유일하게 고구려의 통사 간행
  - 북한학계의 고구려사 인식 대표, 북한 공식입장
- 허종호, 손영종 등, 2006~2008, 『조선단대사』 고구려사1~5
  - 고조선~조선시대 왕조별 역사서, 총 38권
  - 고조선, 부여, 진국, 구려 역사 4권, 고구려사 5권, 백제사 2권, 신라사 3권, 가야사 1권, 발해사 3권, 고려사 5권, 이조사 13권, 연표와 부록 2권
  - 고구려사1(2006), 고구려사2(2007), 고구려사3(2008), 고구려사4(2008), 고구려사5(2008) 출판
  - 집필자는 1권은 허종호, 2권 이하는 손영종



## 북한의 고구려사 관련 대표 서적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2007.11.30, 『조선력사지도첩』,  
사회과학원, 국가측지국 간행
- 분량 : 109쪽, 104 圖
  - ※ 선사시대 : 2圖, 고대(고조선 ~ 발해) : 42圖, 고려시대: 31圖,  
조선시대 : 22圖
- 주요 내용
  - 연대의 상향 조정
  - 영토 범위의 확대
  - 대외항쟁 강조
  - 평양 중심 의식 강조





###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시대구분

#### ○ 남한: 고구려는 고대국가

선사-고대(고조선~남북국)-중세(고려~조선)-근대(1876년 강화도조약~일제강점기)-현대(1945년 이후~현재)

#### ○ 북한: 고구려는 중세봉건사회

선사-고대노예제(고조선, 부여, 진국, 구려)-중세봉건제(삼국~조선)-근대(1866~1926)-현대(1926~)

석기시대: 구석기-중석기-신석기

고대노예사회: 고조선(전조선=단군조선, B.C.30세기초~B.C.15세기 중엽)-후조선(B.C.15세기 중엽~B.C.194), 만조선(B.C.194~B.C.108), 부여, 진국, 구려

중세봉건사회: 삼국, 발해, 고려, 조선 1860년대 초까지-근대(1866제너럴셔먼호~1926)-현대(1926, 타도제국주의동맹~ )

조선력사 시대구분표

시대	시기	시대 및 국가 이름	기 간	
			부 리	파 지
원 시	구석기시대	전기	100만년 전	30만년 전
		중기	30만년 전	5만년 전
		후기	5만년 전	1만5천년 전
	중석기시대		1만5천년 전	9천년 전
	신석기시대		B.C.7천년 기	B.C.3천년 기 초엽
	청동기시대		B.C.4천년 기 후반기	B.C.3천년 기 초
고 대 (노 예 사 회)	정조선(단군조선)		B.C.30세기 초	B.C.15세기 중엽
	후조선		B.C.15세기 중엽	B.C.194년
	부여		B.C.15세기 중엽	B.C.219년
	구려		B.C.15세기 중엽	B.C.277년
	진국		B.C.12세기 경	A.D.1세기 초엽
	만조선		B.C.194년	B.C.108년
	고구려		B.C.277년	668년
중 세 (봉 건 사 회)	삼국	후부여	B.C.2세기 초	494년
		백제	B.C.1세기 말엽	660년
		전기신라	A.D.1세기 초중엽	676년
		가야	A.D.1세기 중엽	562년
		동부여	285년	494년
		북부여	4세기 중엽	5세기 중엽
		발해	698년	926년
	발해 및 후기신라	후기신라	676년	935년
		후백제	900년	936년
		태봉	901년	918년
		고려	918년	1392년
		리조	1392년	1860년대 초엽
		리조	1860년대 중엽	1926년
근대				
현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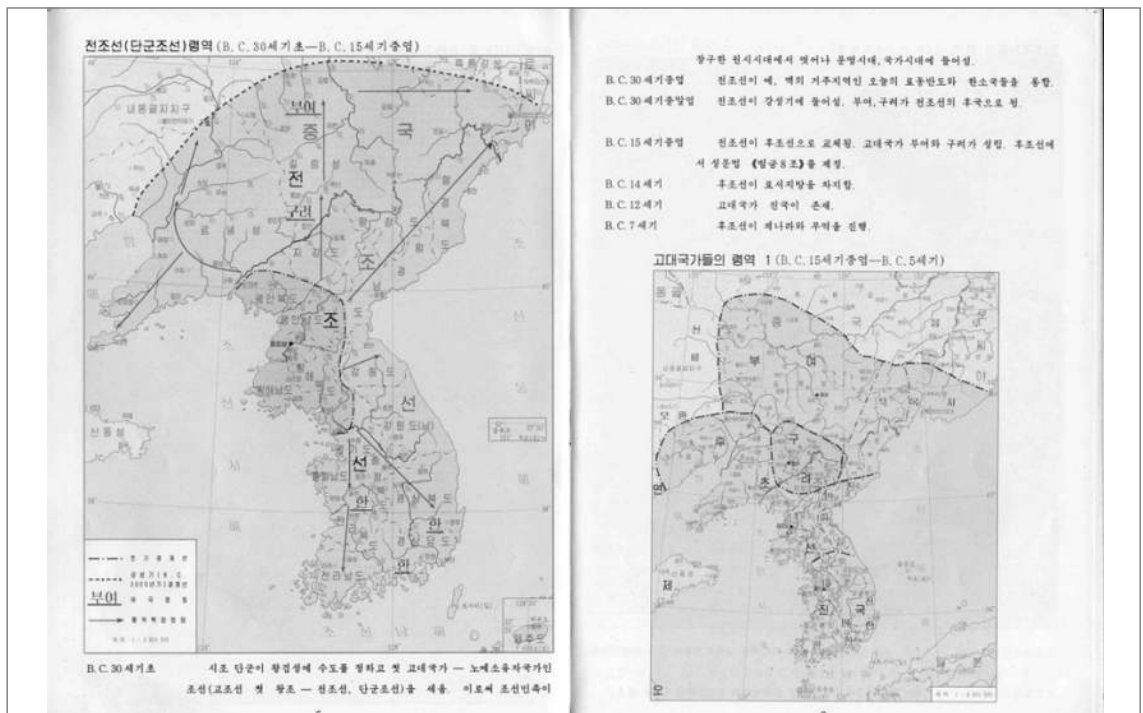
###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 - 고구려의 성립시기와 전사(前史)

#### o 남한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고구려 건국연대인 기원전 37년은 주몽이 2차 고구려연맹체를 주도하는 맹주가 된 해
- 기원전 2세기 무렵 압록강 중류유역에는 적석총을 묘제로 하는 정치체인 고구려 성립 = 소노부 주도 1차 고구려연맹체

#### o 북한

- 기원전 277년 건국설(『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1991, 개정판부터 이후 고구려 논저에서 동일)
- 기원전 1500년경 고조선 경역 외곽에 후국인 구려국 성립  
→ 발전하여 고구려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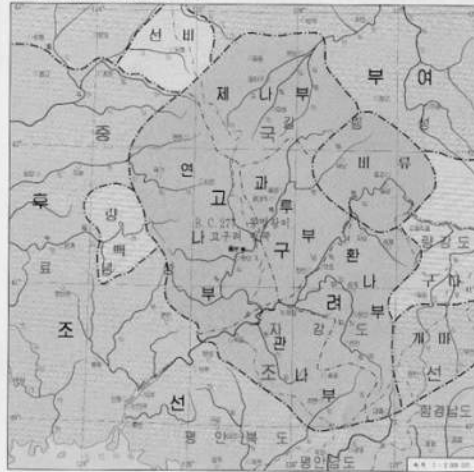
고대국가들의 영역 2 (B.C. 3세기 초엽)



- B.C. 4세기말 후조선이 대두 세를 연나라에 과전하여 실속함으로써 그의 침략기도를 좌절시킴.  
B.C. 3세기초엽 후조선이 연나라군대의 침공으로 겨우만약의 2,000여의 지역을 잃음.

8

고구려건국시기 영역 (B.C. 277년)



- B.C. 298년 4월 고구려가 부여왕궁에서 출생.  
B.C. 279년 고구려가 천구, 오이, 미려, 협포와 함께 부여를 떠나 구려, 파루부의 출생점 (비룡수) 중류지역에 이주.  
고구려가 파루부리족 연라말의 땅 소서노와 결혼.  
고구려가 비룡수 중류를 단념, 고구려가 《말갈》유적을 받.  
B.C. 278년 고구려가 구려, 파루부의 대신으로 받.  
B.C. 277년 동명왕 고구려가 구려(출분부)왕의 땅과 결혼하고 왕위를 차지함.  
나라이름을 고구려로 고침. 봉건국가 고구려 건국.

9

고대 및 중세조 나라들의 영역 1 (B.C. 3세기)



고대 및 중세조 나라들의 영역 2 (B.C. 215년)





## 기원전 277년 고구려 건국설의 근거

### 1. 『三國史記』 권 제22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寶藏王) 사론

고구려는 진한 이후부터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어, 그 북쪽 이웃은 모두 천자의 관아[有司]가 있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영웅이 특별히 일어나 분에 넘치는[僭竊] 이름과 자리를 가졌으니, 두려움이 많은 땅에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의 뜻이 없고 [천자가] 봉한 강역을 침략하여 원수를 만들고, 그 군현에 들어가 살았다. 이런 까닭으로 전쟁이 이어지고 화가 맺어져 편안할 때가 거의 없었다.(하락)

### 2. 『三國史記』 권 제22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寶藏王) 27년 02월

시어사(侍御史) 가언충(賈言忠)이 사명을 받들고 왔다가 요동에서 돌아가니 황제가 묻기를, "군대 안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가언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필시 이길 것입니다.(중략) 또 『고구려비기(高句麗秘記)』에 말하기를, '900년이 되기 전에 팔십(八十) 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고씨(高氏)가 한(漢)대에 나라를 세워 지금 900년이 되고,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오랑캐는 거듭되는 흉년으로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 팔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리와 여우가 성으로 들어가고,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두려워하고 놀라니, 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기원전 277년 고구려 건국설의 근거

- 광개토왕비의 17세손, 『삼국사기』는 12세손→ 5세대 고구려왕 누락→ 건국 및 초기 사실들의 연대를 올려 보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동명왕이 갑신년에 국가를 세웠으므로 진의 중국 통일에 앞선 갑신년은 기원전 277년
- 기원전 277년~668는 945년으로 『唐會要』가 인용한 『高麗秘記』의 "고구려는 1000년을 가지 못할 것"에 부합

31	城	北	巨	獻	四	卒	都	天	母
32	城	閭	為	豐	富	山	海	基	焉
33	分	弥	臣	五	山	陵	梯	業	來
34	而	城	民	掩	負	於	降	樂	母
35	龍	牟	叱	猶	碑	是	至	世	河
36	羅	靈	六	龜	至	立	十	位	伯
37		羊	觀	驗	碑	庶	七	因	安
38	易	弥	丙	土	木	銘	寧	世	處
39	城	沙	由	境	上	記	其	孫	黃
40		城	王	田	破	勳	業	國	猷
41			躬	獵	其	績	國	臣	來
42	城	舍	率	而	丘	叱	富	土	下
43		薦	水	慄	郤	求	吳	廣	田
44		城	軍	百	洛	後	歆	拜	王
45	阿	計	殘	六	世	五	土	王	啟
46	左	旦	利	新	七	焉	榮	境	於
47	奴	城	殘	羅	百	其	豐	年	忽
48	城	古	國	舊	當	言	款	安	本
49	沸	利	軍	曼	用	日	昊	好	東
50	八	城		屬	馬		天	太	臣

###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 -평양 지역의 과거사와 평양천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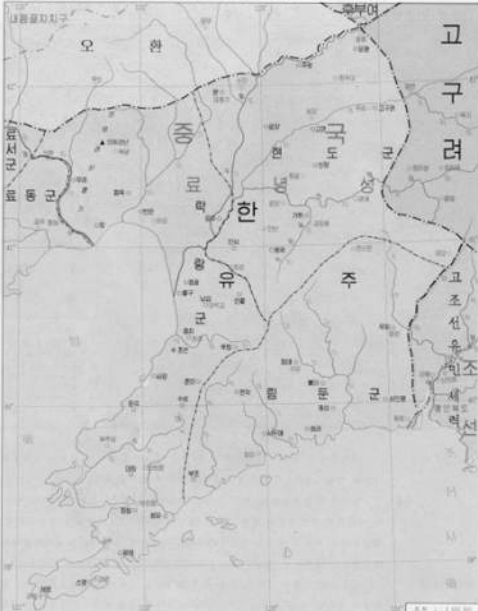
#### ○ 남한

- 낙랑군 옛 땅
- 최리의 낙랑국
- 대외교류의 편의성, 사회, 문화적 기반 등 국가발전의 필요성에서 천도 결정, 이후 남진 본격화
- 삼국 경쟁 과정에서 인적, 문화적, 정치적 교류 진행, 민족형성의 기반 마련됨

#### ○ 북한

- 고조선의 후국, 최리의 낙랑국
- 한사군의 낙랑군은 요동지역에 존재
- 삼국통일을 위한 기반마련(고구려의 삼국 통일지향론)

《한4군》 위치 1 (B. C. 108년 8월—B. C. 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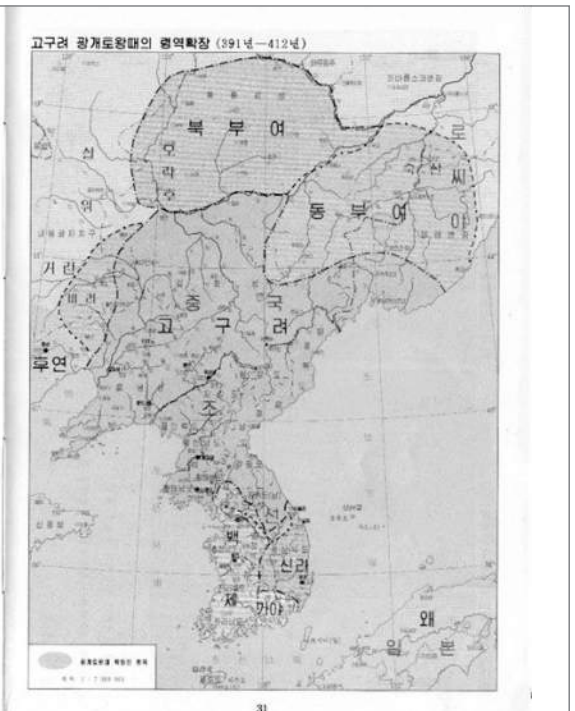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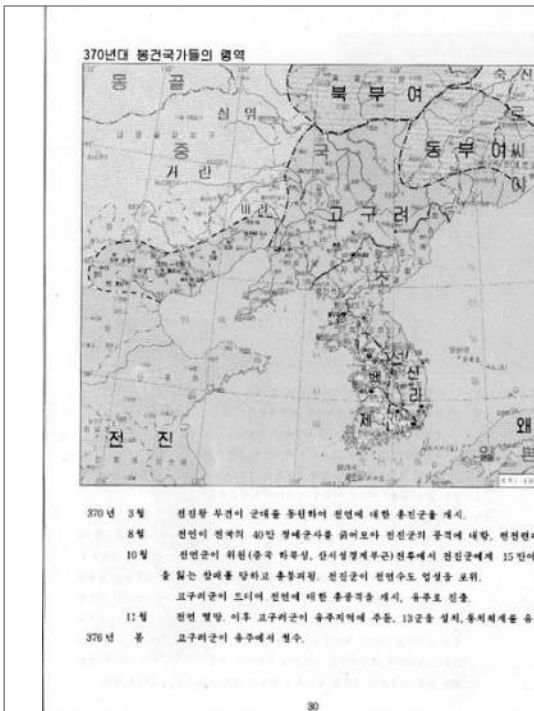


B. C. 108년 8월 고조선서쪽부지역을 장악한 한나라임파자들이 낙랑, 선천, 평안, 함흥의 4개 군(《한4군》)을 설치했다고 전로.

《한4군》 위치 2 (B. C. 82년—B. C. 70년대 초)



고조선동부의 전방소속지역에 두려고 한 전방군은 고구려가 가로막고있었기때문에 설치되는 설치되지 못함.





###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삼국통일에 대한 지향

#### ○ 남한

-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 신라의 통일지향성: 삼한일통의식

#### ○ 북한

- 고구려의 통일지향성 강조
- 김정일, 18세 때인 1960.10.29,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 고구려의 삼국 통일 지향성에 대해 강조
- 채희국, 1982년 출간 저서에서 처음으로 4세기 말 이후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목표로 남방 진출을 단행하였다고 주장
- 손영중, 1990, 『고구려사』1에 김정일의 해당 논설 인용,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삼국을 통일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나라는 고구려였다.”

###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중점 연구분야

#### ○ 남한

- 국가형성과 발전과정, 초기 정치체제, 영역지배방식, 영역확장 과정, 5세기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광개토왕비 연구,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와 수·당 전쟁, 고구려유민 등
-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선두주자로서 발전 과정 및 내용 분석, 백제·신라·가야와 비교
- 1990년대 이후 임진강유역, 한강유역, 경기도, 충청도 일대 고구려 관련 유적 발굴조사 및 관련 연구 진행
- 2002년 이후에는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내용 연구 다수 진행

### 3. 남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차이-중점 연구분야

#### o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의 기본방향 및 인식

##### - 고구려는

① 고조선의 계승자로서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 대외투쟁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

② 남진과정은 백제와 신라 등 겨레 통일을 위한 활동

③ 수당 등 대중원 투쟁은 통일과 민족 보위를 위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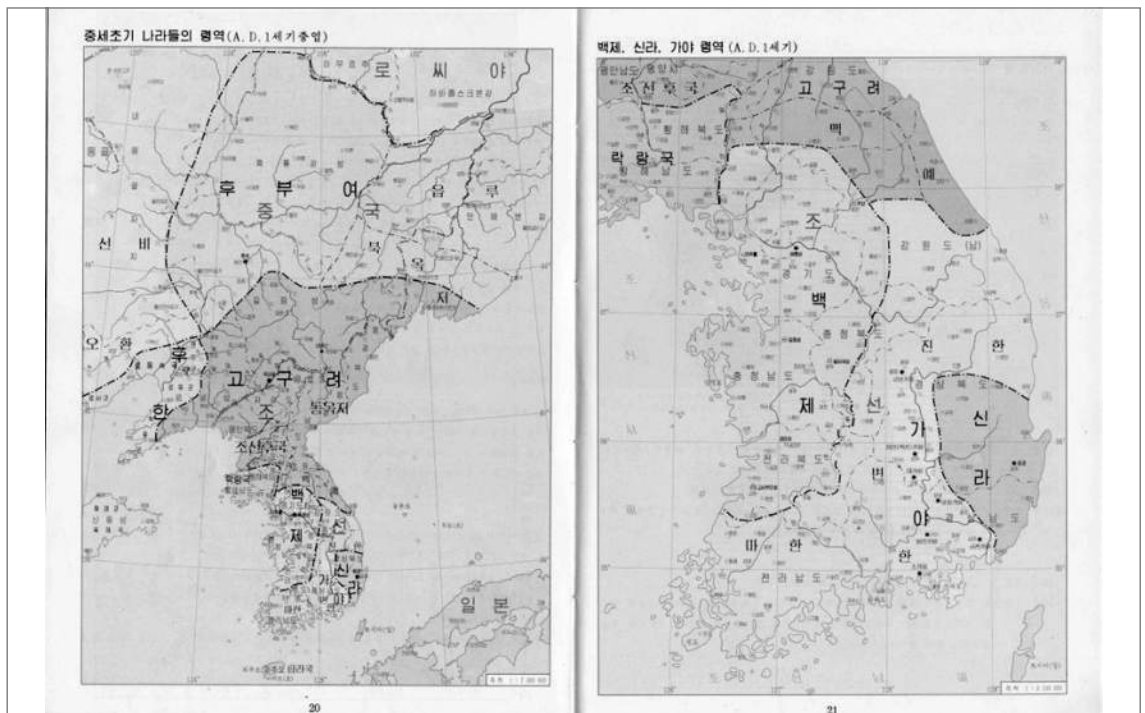
⇒ 이에 따라 대외투쟁사 위주의 연구를 진행

단 조선단대사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분야별 세부적인 연구도 진행.

##### - 고구려 산성, 도성(평양성 등), 고분 등 발굴조사 및 연구

전호태, 1990,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북한의 한국사인식[Ⅰ]』

①고조선의 계승 ②투쟁과 확장, 통일지향의 역사 ③선진문화의 창조와 전파  
조인성, 2009,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호 : ①고토회복, ②통일지향, ③민족보위



삼국령역(6세기말엽—7세기중엽)



36



37

#### 4. 나오며: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 가능할까?
- 통일사학의 필요성
-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함께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의견차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 북한이 생각하는 병자호란

장정수(동북아역사재단)



[마주하는 중세사]

## 북한이 생각하는 병자호란

장정수(동북아역사재단)

### 남한산성의 정문, 남문



출처: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 북한의 병자호란 인식 개관

“리조봉건시기(14세기말~19세기 중엽)의 반침략투쟁은 남쪽으로부터 침입하는 왜적과 북쪽으로부터 침입하는 녀진족에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머리말 中,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 사회과학출판사, 2010)

“임진조국전쟁의 피해도 가시기 전에 감행된 녀진[여진]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조선인민은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조선인민은 또다시 거족적으로 떨쳐 나섰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무능하고 비겁하였으나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녀진의 침략은 저지되고 끝내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적 관계가 수립되었다.” (위와 출처 같음)

## 목차

1. 프롤로그: 병자호란에 관한 통설, 그리고 문제점
2.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3. 인조반정과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
4. 정묘호란과 국교(國交)의 성립
5. 병자호란과 관계의 변형
6. 북한의 정묘·병자호란 관련 역사서술
7. 에필로그: 병자호란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 프롤로그: 병자호란에 관한 통설, 그리고 문제점(1/2)

- 병자호란은 '47일' 간 진행된 전쟁인가? / 전사(前史)에 대한 이해 필요
- 광해군과 인조의 서로 다른 외교정책? / 연속적인 구도로 살펴야
- 당쟁(黨爭)에 여념이 없었다?! / 무슨 이익이 있길래 '다툼'을 벌이나
- 척화론에 몰두하고 방비책 마련에는 소홀? /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
- 조선 조정의 주류는 정말 척화론이었나? / 명분과 현실은 대립이 아닌 공존

#### 프롤로그: 병자호란에 관한 통설, 그리고 문제점(2/2)

- 교섭의 여지가 적은 전쟁 / 홍타이지의 의도가 반영된 전쟁!
- 조선이 자초한 전쟁인가? 아니면 청의 일방적인 침략 전쟁인가!
- 군신관계 강요의 목적 / 의례적? 아니면 전략적!
- 남북한을 통틀어 항쟁사적 역사서술, 결과론을 지양해야 한다!
- 조선의 승산은 전혀 없었나? / '상승(常勝)'은 없다!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 조선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체계를 정비한 국가
  -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학자들이 관료로 진출하여 국가 경영
  - 중국과 북방민족의 역사에 해박한 인물들이 관료체제를 건인
  - 북방민족의 굴기가 중원과 고려(조선)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식
  - 선조대부터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를 위협으로 인지
- 선조대 여진의 관계부터 이후 후금, 청과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살펴야 함

## 참고: 여진의 세력분포



출처: Cambridge History of China(2016)

## 알아두기: 여진의 존재양태

- 14~16세기 여진에 대한 이해의 재고
  - 1) 명에서는 건주, 해서, 야인여직(여진) 등 세 종족[三種]으로 분류
  - 2) 조선에서는 와르카, 오도리, 우지개 등으로 분류
  - 3) 만주인들은 만주, 홀룬, 장백산, 동해여진 등 4개의 부족[Aiman]으로 서술
- 16세기 중반부터 건주(만주)와 해서(홀룬)이 경쟁적으로 여진 통합
- 1616년 건주여진이 여진국가 후금국(後金國, Amaga Aisin Gurun)으로 변모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 16세기 조선은 두만강 유역의 일부 여진 세력을 '번호(藩胡)'로 규정
- 번호는 친(親) 조선적 여진부락들로 구성된 울타리, 심처호(深處胡)에 대응
- 17세기 초반부터 홀룬의 올라(Ula, 烏拉)와 건주여진의 경쟁적인 병합
- 조선은 번호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 차례 시행
- 홀룬, 건주여진과는 별도의 노선에서 교섭 / 위기감 고조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 1595년 신충일(申忠一)을 건주여진에 파견하여 교섭
- 1601년부터 건주여진 소속 여진인들에게 곡식을 지급 / 기근 대응
- 1603~1605년 번호의 귀속을 둘러싼 홀룬과의 군사적 충돌
- 1605년 건퇴(件退) 전투에 홀룬에게 대패한 뒤 화친 교섭 돌입
- 1606년 홀룬과 화친한 뒤, 관직과 녹봉을 지급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 1605년 건퇴전투의 패배 이후, 요동의 명나라 아문에 사태 보고
- 1607년 건주여진이 홀룬을 제압 / 조선에서 육안으로 관측
- 1608년 요동아문의 조선 병탄 시도가 무위에 그치고 조-명 군사공조 추진
- 1609년 건주여진, 홀룬의 두 부족과 교역을 시작 / 상호 견제
- 1613년 건주여진, 홀룬을 병합하여 사실상 여진 통일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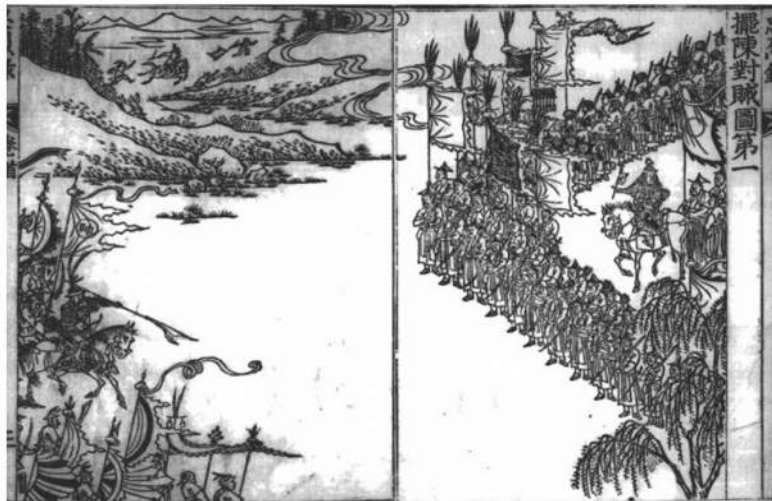
- 1613년 누르하치가 여허부를 공략했으나 명의 간섭으로 실패
- 1614년 명 요동아문에서 건주여진 정벌을 위한 군사협력을 요구
- 1616년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
- 1617년 누르하치, 명나라 공격을 앞두고 조선에 중립(中立) 요구 / 무대응
- 1618년 후금, 명나라를 공격 / 전면전 개시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 1618년 윤4월, 요동에서 조병(助兵) 요구
- 1618년 윤4월~6월, 요동의 요구에 대한 수락 여부로 논쟁이 진행
- 1618년 7월, 명의 경략(經略) 양호(楊鎬)에서 조선을 질책
- 1618년 9월, 명 황제의 칙서가 하달 / 조선의 출병 결정
- 1619년 2월, 도원수 강홍립(姜弘立) 휘하의 조선군 13,000여 명이 출병

### 조선군과 후금군의 대치



출처: 중간충렬록(重刊忠烈錄) / 그림1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 1619년 3월, 심하전투(深河戰鬪)에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후금에게 패배
- 1619년 4월, 명과 후금에서 모두 협조를 요구
- 1619년 7월, 후금에 차관 파견 / 평안감사 명의로 회답서한 발송
- 1619년 9월, 명에서 간섭하여 후금과의 교섭 중단
- 1620년에는 명과 후금 모두 조선을 우군(友軍)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

#### 선조~광해군대 여진·후금(後金)에 대한 대응

- 1621년 3월, 후금이 요동을 함락 / 명과의 육상교통로 단절
- 1621년 5월, '옥강의 변' /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피난온 한인 도륙
- 1621년 8월, 명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후금에게 패전한 뒤 조선에 의탁
- 1621년 9월, 후금에 차관 파견 / 모문룡 문제와 향후 양국관계 논의
- 1621년 12월, '임반의 변' / 후금군이 재차 압록강을 건너 한인 도륙
- 1622년 4월 및 8월 후금에 사신 파견 / 8월에는 국서(國書) 지참

#### 인조반정과 '친명배금(親明排金)'정책

- 1623년 3월, 인조가 이끄는 거사군이 대궐 장악, 광해군 폐위
- 동월, 광해군의 죄목 중 하나로 명을 배신하고 후금과 밀통한 것을 강조
- 1623년 4월, 장만(張晩)을 도원수로 임명하고 모문룡과의 '동심협력' 표방
- 1623년은 조선이 노골적인 '친명배금'을 내세우며 '친정(親征)'까지 고려
- 1624년 1월, '이괄의 난' / 반군이 도성을 함락하고 새 국왕[흥안군] 추대
- 이괄의 난 이후, 조선은 '친정'을 폐기하고 도성방어론으로 급선회

#### 인조반정과 '친명배금(親明排金)'정책

- 1624년 이후 도성방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전략 시행
  1. 경기지역의 병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도성외곽의 방어 강화
  2. 남한산성의 축조, 강화도의 요새화
  3.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군을 통합 운영
- 1625년, 후금에 차관 파견 고려 / 명 측의 반대로 중단
- 조선과 명의 군사공조는 '첩보공유'에 그치는 비현실적 차원에서 유지

### 인조반정과 '친명배금(親明排金)'정책

- 인조반정 이후부터 정묘호란 때까지 '친명배금'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활용
- 인조의 국왕책봉 이후에는 군사적 협력보다,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 조선의 가도(假島)에 동강진(東江鎭)을 개설한 모문룡과 형식적 협력 유지
- 친명배금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름
- 1626년 누르하치의 죽음 이후, 조선에 대한 강경론자 홍타이지 즉위

### 인조반정과 '친명배금(親明排金)'정책

- 광해군과 인조대의 차이
  1. 광해군대부터 후금의 요구는 '국서'
  2. 국서는 양국 군주 간에 주고받는 공식 서신을 의미, 공식적 국교를 상징
  3. 1622년 광해군의 국서 발송으로 전 단계까지 진전 / 인조반정으로 무산
- 광해군과 인조대의 연속성
  1. 후금의 군사력 우위를 분명히 의식
  2. 명과의 군사공조가 비현실적인 전략임을 인지
  3. 명나라의 이목을 피해 비공식적 노선의 교섭을 이어갈 의지 존재

#### 정묘호란과 국교(國交)의 성립

- 1627년 1월, 후금의 침입 / 정묘호란 발발
- 의주, 광산, 정주 등 청천강 이북 점령 / 모문룡은 섬으로 도주
- 일주일 만에 조선과 후금의 화친 의사 교환[국서&철병]
- 후금군 내부의 이견 발생 / 내지로 진격 vs 적정선의 화친 = 전쟁의 지속
- 안주성 함락을 계기로, 양국 전쟁은 보름 간 지속
- 황해도를 중개지로, 평안도의 후금군과 경기도 이남의 조선군이 대치 → 화친 교섭 돌입

#### 정묘호란과 국교(國交)의 성립

- 화친 교섭의 중개자는 강홍립, 이후에는 한인(漢人) 유해(劉海)
- 국서가 골자 / 연호 사용 문제로 이견 발생
- 후금은 명과의 단절 요구, 조선은 명을 인정한 상태에서 후금과 화친 주장
- 조선 내부의 이견 / 주화 vs 척화
- 명을 상위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조선과 후금의 화친 성립 / 맹약
- 정묘호란 이후, 조선국왕(朝鮮國王)과 금국한(金國汗) 간의 교섭 창구 개통

## 고지도에 보이는 안주성 전경



출처: 해동지도(海東地圖), 18세기

## 정묘호란과 국교(國交)의 성립

### • 맹약 이후의 화친

1. 조선과 후금의 맹약 이후, 군사적 상황은 지속
  2. 청천강 이북에서 조선 의병진들이 5개월 간 추가로 항전
  3. 화친 결렬의 위기였으나, 결국 의병진들의 자진 해산으로 사태 종료
- 5개월에 걸친 의병 항쟁은 상당한 전과를 올림 / \*북한에서 강조하는 부분
  -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었지만, 조선과 후금의 화친은 전략적 차원에서 유지

#### 정묘호란과 국교(國交)의 성립

- 국교는 국서, 사신[信使] 를 중심으로 전개
  - 예물과 세폐 문제, 시장 개설[互市], 포로 송환 등이 현안
  - 1627~1636년까지 10년 간 양국 관계는 유지
  - 조선과 후금의 국교는 이웃나라[隣國] 차원에서 대등한 위치로 전개
  - 내적, 외적 갈등은 존재했지만, 주로 서신으로 교섭을 진행
- \*가장 큰 문제는 동강진과의 관계

#### 정묘호란과 국교(國交)의 성립

- 정묘호란의 의의
  1. 전쟁의 위협을 일시적 종식 / 영장제(營將制)의 시행 등, 자강(自強) 기회 확보
  2. 이면에서 지속되던 교섭을 공식적인 차원으로 발전
  3. 명의 '적'과 화친하면서도, 양측과의 이를 무마할 논리 마련
  4. 내부의 척화론을 어느 정도는 안정 / 명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전제
- 정묘호란 당시 촉발된 척화론은 이후 대의명분의 상징이 되었으나, 이는 주화론이 만연했음을 반증



## 병자호란과 관계의 변형

### • 조선-후금 국교의 파탄

1. 1636년 2월, 후금의 홍타이지가 칭제(稱帝)를 앞두고 조선국왕 의견을 묻고자 사절 파견
  2. 사절 중 몽골인들이 몽고제왕과 조선국왕을 대등한 예로 대함 / 홍타이지보다 아래에 둠
  3. 조선의 사신 이확과 나덕헌이 홍타이지의 칭제 행사에 참석했으나 행례(行禮) 거부
  4. 홍타이지가 황제로서 조선국왕을 하대한 국서를 발송 / 나덕헌 등이 수신을 거부
  5. 조선에서는 화친의 결렬을 공식 선언, 대비책 마련을 전국에 촉구 / 척화론 촉발
- 후금에서 기존의 대등한 국교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파탄에 이름

## 병자호란과 관계의 변형

### • 조선의 화친 재개 시도

1. 화친의 결렬이 공식화 된 가운데, 다시 국서를 보내어 책임 소재를 논하고자 함 / 거부
  2. 1636년 11월, 홍타이지가 전쟁 준비 지시 / 12월 2일에 선발대 출발
  3. 조선 사신 박로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여 심양으로 가다가 진군하는 청의 우익군에 생포
  4. 12월 8일 청군 선발대가 의주에 도착하여, 14일에 도성 인근에 출현
  5.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 준비 / 전쟁의 시작
- 홍타이지의 칭제는 정묘호란 당시 조선과 합의한 내용과 달라서 화친 결렬



## 병자호란시 청군의 편제

구분	좌익군	우익군	전봉군(선봉)	후속군
지휘관	도르곤	홍타이지(태종)	마푸타	두두
	호오거	다이산	로오사	공유덕(한인)
		만주시리(몽고)	도도	경중명(한인)
		부타지(몽고)	요토	상가희(한인)
			양구리	석정주(한인)
			쇼토	마광원(한인)
			니칸	
총병력: 34,000여 명	3기(정백 · 양 백 · 정남) 및 외번몽고 좌익	5기(정황 · 양 황 · 정홍 · 양 홍 · 양남) 및 외번몽고 우익	1대 : 300명 2대 : 1,000명 3대 : 3,000명	두두 예하군사 및 화기부대

출처: 장정수(2016) 논문

## 청군 우익과 좌익의 침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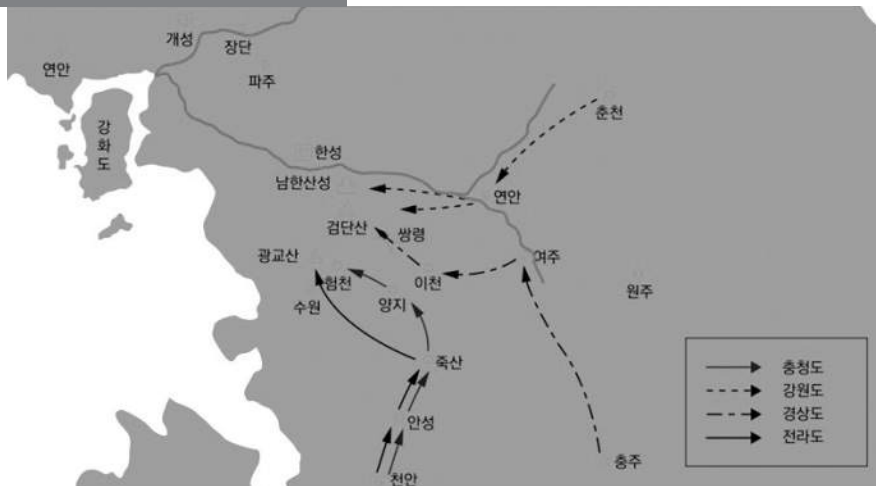
출처: 장정수(2016) 논문

## 병자호란과 관계의 변형

### • 전쟁의 양상

1. 조선의 방어전략: 청북(청천강이북), 청남(청천강이남), 해서(황해도), 도성(남한산성, 강도)
  2. 청북에서는 무저항[대피소로 산성 활용], 청남에서는 청의 전투 회피[안주성], 해서에서 도원수와 부원수의 군대를 각개 격파
  3. 포위된 남한산성, 포위망을 굳히는 청군,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조선 근왕병(勤王兵)
  4. 경기도를 제외[남한산성 입보]한 전국 7도의 구원병이 남한산성 외곽에서 청군과 전투
  5. 1637년 1월 10일, 근왕병은 수세로 전환하고 남한산성은 교착상태 돌입 / 장기전 국면
- 홍타이지가 조선국왕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2주 소요

## 조선 근왕병의 집결 상황



출처: 장정수(2016) 논문

## 조선 근왕병의 재집결 상황



출처: 장정수(2016) 논문

## 병자호란과 관계의 변형

### • 근왕병의 전투

1. 청태종 유시문에서 12차례 승전 표명 / 실제 근왕병과의 교전은 9차례(청 측 전공 과장)
  2. 청태종의 우익군은 황해도 황주에서 한 차례 이상 피해, 광교산에서 전라도 근왕병이 승전, 김화에서 평안도 근왕병이 승전
  3. 남한산성 내부에서도 수 차례 출격하여 포위 중인 청군 공격 / 이후 북문 전투에서 패전
  4. 경기도 미원[오늘날 미사리]에 근왕병 2만 3천여 명이 재집결, 남한산성과 기각지세
  5. 청군은 방향을 바꾸어 강도를 공격하여 함락(1월 22일) / 조선의 항전 의지 무력화
- 23~25일, 청군이 남한산성 공격 / 항전 의지가 꺾인 조선은 항복(1월 30일)

## 병자호란과 관계의 변형

### • 전쟁의 경과

1. 인조는 1월 30일, 출성하여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삼궤구고두례'의 항례를 치름
  2. 척화신의 압송 조건 수락[홍익한, 오달제, 윤집 등 삼학사]
  3. 청의 명조구례(明朝舊例) 요구를 수용 / 명과의 관계 단절, 청과의 군신관계 수립
  4. 인조, 도성으로 돌아와 전국의 근왕병와 의병진에 해산 명령
  5. 함경도 근왕병은 귀로에서 청군과 조우하여 전투, 큰 손실 입고 패전
  6. 청군과 함께 가도를 함락하여 조선과 명의 중개지였던 동강진 소멸
- 조선과 후금의 대등한 국교는, 군신의례에 입각한 조청관계로 변모

## 북한의 정묘·병자호란 관련 역사서술

### • 북한의 대외항쟁사[반침략투쟁사] 연구

1. 북한은 반봉건, 반외세를 기조로 삼아 대외관계를 연구
  2. 국왕이나 관료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인민'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서술
  3. 승전을 집중 조명한 것도 하나의 특징 / 한국학계도 1960년대 초까지 유사한 분위기
  4. 고구려와 수·당 전쟁, 고려의 대몽(對蒙) 항쟁, 임진조국전쟁[임진왜란]을 특히 강조
- 남·북한 학계는 1950~1960년대까지 식민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아래 한국의 자주적 면모를 확인하고, 외세의 침략에 대항했던 역사를 강조

### 북한의 정묘·병자호란 관련 역사서술

- 여전한 북한의 '반침략투쟁사'
  1. 한국학계는 1970년대 이후, 대외관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항쟁사적 관점에서 탈피하는 추세 / 현재는 해외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이 제시
  2. 한국학계에서는 관(官)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 북한에서는 여전히 '인민'을 주체로 강조
  3. 병자호란 연구는 '임진조국전쟁'의 압도적인 위세에 눌려 서술 분량이 소략한 편
  4. 병자호란보다는 정묘호란 분량이 많은 것도 특징
- 북한의 병자호란 서술은 패전이나 정치·외교적 영향은 도외시하고, 지배층의 무능함과 인민의英勇적 항쟁을 강조하는 형태로 박제화

### 북한의 정묘·병자호란 관련 역사서술

- 체제성립기(1950~1960년대) 북한의 병자호란 인식
  1. 이 시기에는 북학학계의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 / 한국학계와 유사한 어조
  2. 임진왜란과 달리, 별도의 장이 마련되지 않음 / 주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연계하여 서술
  3. 조선의 허술한 국방태세를 지적하며, 침입을 자초했다는 서술을 한국과 유사하지만 비난을 지배층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 강조 / 지배층의 수탈과 함께 서술
  4. 병자호란보다 정묘호란, 특히 청천강 이북 의병진들의 활동을 상세히 다룸(서술의 70%)
  5. 북한이라는 지역적 특성[평안도], 인민들의 자발적 항쟁 강조
  6. 정묘호란 당시의 화친, 병자호란 때의 항복은 모두 지배층의 비굴한 행위로 비난(무책임한 지배층 & 애국인민)

### 체제성립기 북한의 병자호란 서술들

“국왕을 비롯한 봉건 통치배들의 무능과 안일성과 그들의 매국적 투항은 조국과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 1956)

“당시 조선 인민은 비록 봉건 정권이나마 튼튼한 정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인민들의 헌신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매국적 통치배들의 배신적 투항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같은 책)

“매국적 통치배들이 이내 투항하고 말았으므로 그들[의병]의 애국적 항전도 종국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 해산하게 되었다.” (박시형, 『조선중세사(하)』, 1956)

“왕이나 대신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명예와 운명보다도 자기의 일신과 가족들이 더욱 소중하였던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 1962)

### 북한의 정묘·병자호란 관련 역사서술

#### • 1970~1980년대 북한의 병자호란 인식

1. 북한 주체사관의 성립 시기 / 인민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더욱 강조
2. 동시기 한국학계의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전을 본 데 반해, 이전의 유연성마저 사라진 항쟁사 서술이 박제된 시기
3. 체제성립기의 서술이 주체사관에 맞추어 재해석된 수준
4. 승전으로 미화하기 어려운 호란에 대한 서술상의 난맥이 여실히 드러남 / 임진왜란의 뒤에 부기된 형태
5.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모두 ‘승전’으로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 노출
6. 연구의 전반적 ‘퇴보’

### 체제성립기 북한의 병자호란 서술들

“왕과 대신들은 애국적인민들의 힘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날 길만 생각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편, 『조선력사(고급1)』, 1972)

“녀진 침략자들은 비겁한 리조통치배들과 화해를 맺을 수는 있었으나 우리 인민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곧 제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책)

“(정묘호란) 계속되는 패전으로 적들은 드디어 청천강이북지역을 강점해보려던 음흉한 기도를 버리고 완전히 쫓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통사(상)』, 1977)

“(정묘호란) 의주, 룡천, 철산, 선천, 광산 등 청천강 이북 지역들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꺾기하여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10, 1980)

### 북한의 정묘·병자호란 관련 역사서술

#### •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반침략투쟁사의 기초

1. 현재 북한에서 발간되는 역사서들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충실해진 경향이 확연
2.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서술 역시, 어느 정도 분량과 체제를 갖추어 한국학계의 개설서와 비슷한 형태로 정립
3. But 여전히 인민들의 투쟁을 강조하고, 지배층의 안일한 자세를 비난하는 기초는 유지
4. 주체사관으로 인해 박제화 된 서술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에필로그: 병자호란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 대외항쟁사의 틀에서 벗어나 점차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학계와 달리, 북한학계는 여전히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부각하는 논리를 유지
- 북한 역시 객관적인 서술을 갖추어 가지만, '반봉건, 반외세'의 논리에 구속
-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이 국교를 맺은 계기이며, 조청관계는 속국화나 식민 지배와는 다른 성격
- 패전이 아닌 국교 수립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 / 한중관계사의 일부
-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자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신미양요에 대한 남북의 시선

남광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신미양요에 대한 남북의 시선

남광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 제너럴 셔먼호 사건

- 1866년(조선 고종 3년, 미국 앤드루 존슨 대통령 2년) 음력 7월 12일(양력 8월 21일) 평양 군민들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General Sherman)를 응징하여 불에 태워버린 사건.
-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렸는데, 이에 박 규수의 지휘 하에 관민들의 저항으로 배는 소각되고, 선원들은 처형됨. 이 사건은 신미양요의 원인이 됨.
- 셔먼 호는 미국의 군인 윌리엄 테쿰세 셔먼의 이름을 딴 것이었고, 텐진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상인 프레스턴(Preston)의 소유. 중화기로 무장된 이 배의 승무원은 선장 페이지, 1등 항해사 월슨, 13명의 청국인, 3명의 말레이시아인 선원으로 구성되었음.
- 소유주 프레스턴도 배에 올랐고, 영국인 호가스(Hogarth)와 항해사 겸 통역인 역할을 위해서 런던 선교회 소속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도 승선. 이들은 1866년 8월 16일에 조선의 해안가에 당도함.
- 중국 정크선의(선장 유화태) 인도로 8월 20일(음력 7월 11일)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경내에 들어감. 셔먼호가 평양 경내에 정박하는 것을 보고, 지방 관리들은 페이지 선장을 만났고, 평양에 온 목적을 물음.

- 토머스 선교사는 백인들의 국적을 소개하고 항해 목적에 대하여서는 상거래를 위한 것일 뿐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가져온 비단·자명종 등을 쌀·사금·홍삼·호피 등과의 교역하자고 제의함.
- 조선인들은 모든 상거래 제의를 거부하되 승무원들에게 식량과 보급품을 제공하는 데에는 동의. 조선인들은 좀 더 고급 관리와 상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페이지 선장에게 말해 두었으나 셔먼 호는 강을 더 거슬러 올라감.
- 8월 21일(음력 7월 12일) 조선의 강경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셔먼호는 만경대 한사정(閑似亭)에까지 올라와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군(中軍) 이현익(李玄益)을 붙잡아 감금함.
- 평양성 내의 관민은 크게 격분하여 강변으로 몰려들었고, 셔먼호에서는 소총과 대포를 이들 관민에게 마구 쏘아 사태는 더욱 악화됨. 셔먼호의 무모한 행동에 대하여 강변의 군민은 돌팔매·활·소총으로 맞서 대항하고, 퇴교(退校) 박춘권(朴春權)은 배를 타고 가서 이현익을 구출함.
- 당시 며칠씩 계속된 비로 강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셔먼호는 대동강을 따라 계속 올라 왔으나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평상시 수위로 돌아가게 되자 셔먼호는 양각도 서쪽 모래톱에 선체가 걸려 움직일 수가 없게 됨. 불안과 초조에 휩싸인 셔먼호의 승무원들은 대포를 발사하는 등 폭력을 자행하여 평양 사람 7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일어남.

-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구하던 중 한 교졸이 지원. 이 교졸은 어촌의 괴피선(작은 배) 수백 척을 동원하여 배안에 기름을 끼얹은 뒤 섶을 가득 실어 불을 지르게 하고 궁수로 하여금 일제히 화살을 당기게 함.
- 박규수는 철산부사(鐵山府事) 백낙연(白樂淵) 등과 상의하여 8월 30일(음력 7월 21일)부터 포격을 가한 뒤 대동강 물에 식용유를 풀고 불을 붙여 서면호를 불태워 격침시켰으며, 승무원 23명 가운데 대부분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음.
- 배에 불이 번지자 영국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와 중국 상인 조능봉이 뱃머리로 기어나와 살려달라고 애원. 박규수는 이들을 강안으로 데려왔으나 성난 평양 부민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 그들을 때려죽였으며, 나머지 생존자들도 전원 사망.
- 박규수는 품계가 올랐고 이후 대원군의 각별한 총애를 얻음.
- 당시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이 사건과 같은 해 10월 26일(음력 9월)에 일어난 프랑스 함대의 침입 사건인 병인양요를 계기로 양이정책(攘夷政策)인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더 한층 강화함.
- 1866년 제너럴서면호 사건은 1865년 미국 링컨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후 권력을 승계받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탄핵(1868년) 등 어수선한 미국 국내 사건으로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5년 후 1871년 신미양요의 원인이 됨.

## 2. 신미양요

- 1871년(고종 8년)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옴으로써 일어난 사건.
- 1866년 서면호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강제로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북경 주재 미국공사 로(F. Law)에게 훈령하여 미국의 아시아 함대를 출동케 함.
- 1870년 프레더릭 로는 베이징 주재 미국 공사로 부임한 뒤 미해군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 저스와 원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 5월을 원정 시기로 계획함.
- 당시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킨 가나가와 조약의 전례에 따라 조선도 무력시위를 통해 개항시 키고자 함.
- 1871년 음력 1월 17일에 발송된 편지에서 로우는 자신을 미국 공사로 소개하며 미국의 요 구사항을 조선 조정에게 전달.
- 편지에 적힌 주요 내용은 제너럴 서면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국 선박의 항해 안전 보장과 일본의 예와 같은 통상조약의 체결이었음.
- 조선 조정은 거부. 제너럴 서면호 사건 당시 평안감사였던 박규수가 답신. 박규수는 “위험에 빠진 선원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서면호는 경계를 무단 침범하여 발생한 일이란 것을 누차 해명하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문제를 삼는 까닭을 모르겠다.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능멸하지 않았다면 조선관민이 어찌 먼저 남에게 능멸을 가하겠는가”라고 오히려 미국의 잘못을 지적.

- 로 공사는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J. Rodgers)와 함께 기함 콜로라도호 등 5척의 군함 에 병력 1,230명을 이끌고 1871년 4월 3일 남양(南陽) 앞바다에 도착, 조선정부에 통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그러나 미국의 한 지대는 소함정 4척을 이끌고 강화해협을 측량하기 위해 강화부의 관문인 손돌목을 지나 광성진으로 진입. 이에 강화 수병이 포격을 퍼붓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짐.
- 외교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조선 침공을 강행하였고 《뉴욕 헤럴드》는 “이교도들과의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도. 미국은 프랑스 신부 리델을 길잡이로 삼아 5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
- 강화도 앞 물치도에 함대를 정박시킨 미군은, 음력 4월 23일 초지진을 공격.
- 미국 군함이 영종도에 이르자 사람을 보내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미군은 직급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함. 6월 1일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서 멀리 않은 곳에 정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강화도에 군사와 군량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행호군(行護軍) 어재연을 진무중군(鎭撫中軍)에 임명하여 방어토록 함.
- 이 날 미국 함대중 두척이 손돌목을 지나자 조선군이 대포로 포격. 미국 군함은 응사하며 빠르게 빠져나감. 미군은 손돌목의 포격을 빌미로 강화도를 공격함.
- 미국은 원정을 위해, 500명 이상의 선원과 해병대 100명으로 구성된 650명의 병력과 미국 전함 기함 콜로라도, 알레스카, 팔로스, 모노캐시, 베네시아, 다섯 척의 전함을 준비. 기함에는 해군 소장 존 로저스와 주청 미국 공사 프레더릭 로가 탑승해 있었음.

- 6월 2일 광성진 앞 염하에 집결한 미군 함대가 포격을 개시. 포격을 마친 함대는 남하하여 손돌목을 지날 때 또 다시 포격을 가함. 조선도 응사하여 미국 함선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미국 함대의 피해는 경미.
- 6월 10일 미군은 초지진에 상륙하여 포대를 점령한 다음, 다시 복진하여 광성진을 공격. 백병전으로까지 치러진 전투가 매우 치열하여 고종 실록에는 전투의 사상자를 전사 53명, 부상 24명으로 기록하고 있음.
- 8시간 가량 치러진 이 전투에서 조선측은 어재연 등 24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였으며, 20여 명이 포로로 잡힘.
- 미군은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데 그침. 미군은 광성진의 관아를 불태우고 초지진을 거점으로 삼아 주둔.
- 미군도 매키(McKee) 해군 중위 이하 3명이 전사, 10여 명이 부상.
- 다음날에는 첨사 이염이 초지진을 야습하여 미군 선박을 물리침.
- 광성보 전투 후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며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음.
- 어재연이 전사하자 조선은 김선필을 진무중군으로 임명하고 초지진에 주둔한 미군을 야간에 기습.
- 미군은 사망이 포위된 진지를 버리고 퇴각하였는데, 애초의 제한적 공격이 목표를 달성하였 다는 판단과 다수의 전함이 암초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까닭 때문.
- 미군은 물치도로 퇴각하여 20일 동안 포로 석방을 빌미로 통상을 요구. 미군도 공격이 무모함을 깨닫고 7월 3일 40여 일 만에 강화 해역에서 물러감.

### 3. 교과서『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 역사』의 서술 특징

- 북한에서는 김일성정권 수립 이후 북한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제시기 김일성의 항일 혁명 활동사를 왜곡, 미화하여 세뇌시킴. “위대한 수령, ”영원한 주석, “ ”민족의 태양”으로 신격화.
- 만주항일무장 투쟁 역사를 북한역사교과서에서의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분석.
- 김일성 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 전반에 걸쳐 반제반봉건투쟁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서술하고 세뇌교육을 강화.
- 조부 김응우가 의병장으로 제너럴 셔먼호 격침을 주도했다고 가르침.
- <조선력사 3권> 93~94쪽에서 1871년 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북한은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가 주도한 것으로 주장함.
-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항일운동을 지도했다고 가르침.
- 심지어 7세인 김일성이 3·1 운동에 참여했다고 가르침.
- 북한에서 근현대사는 김일성 가계의 혁명역사로 치환한 것으로 현대사의 출발점을 김일성이 14세에 만주에서 조직했다고 선전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시점인 1926년으로 기술하고 있음.
- 교과서 제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 개척” 단원에서부터 ‘혁명적 가정에서의 탄생’을 강조하며 김일성 가계를 미화.

- 김일성이 태양이기 때문에 진달래도 김일성의 눈이 닳아야 피고, 김일성은 어려서 부터 이미 뛰어난 성인이었고 빛을 타고 창공을 나는 신출귀몰한 존재로 묘사됨.
- 김일성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은 조선의 계급투쟁 역사와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고 선전함으로써 유교적 가계 전통 이미지를 강조.
- 김일성의 탄생은 역사적 필연이며 메시아적 탄생으로 서술됨.
- “탁월하고도 비범한 지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뒤엉킨 현상의 본질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과학적 통찰력, 수백만 인민의 여망을 단 하나의 명제에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신적 존재로 묘사.
- 김일성의 아내인 김정숙 역시 뛰어난 항일혁명투사로 북한 주민 모두의 어머니로 서술됨. 역사교과서에서 김일성가 계만이 가장 훌륭한 애국자 가족으로 묘사되고 있음.
- 김일성의 지도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작전으로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을 맞이했다고 거 짓 역사를 기술하고 있음.
- 우상화, 신격화는 아들 김정일에게도 이어져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은 인민들의 마음에 영원히 아로새겨져 영생한다고 세뇌시킴.



- 김일성은 1920년대는 비적활동을 하였고, 1930년대에는 중국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소련공산당을 위해 주어진 항일임무를 수행함.
- 김정일이 백두 밀영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김정일의 출생 년도마저 김일성의 출생 년도인 1912년에 맞추어 1941년을 1942년으로 조작, 김정은도 1982년에 태어난 것으로 함.
- 김일성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을 침략한 남한과 미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전.

#### 4.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치사상 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

- 소련에 의해 권력의 장악자로 선정된 김일성을 북한정권의 지도자로 옹립하기 위한 미화작업이 필요해 신화화가 진행됨.
- 소련군 초급장교로 활동하 사실과 동만주 일부 지역에서 한 약간의 반일운동을 확대, 미화하여 독립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로 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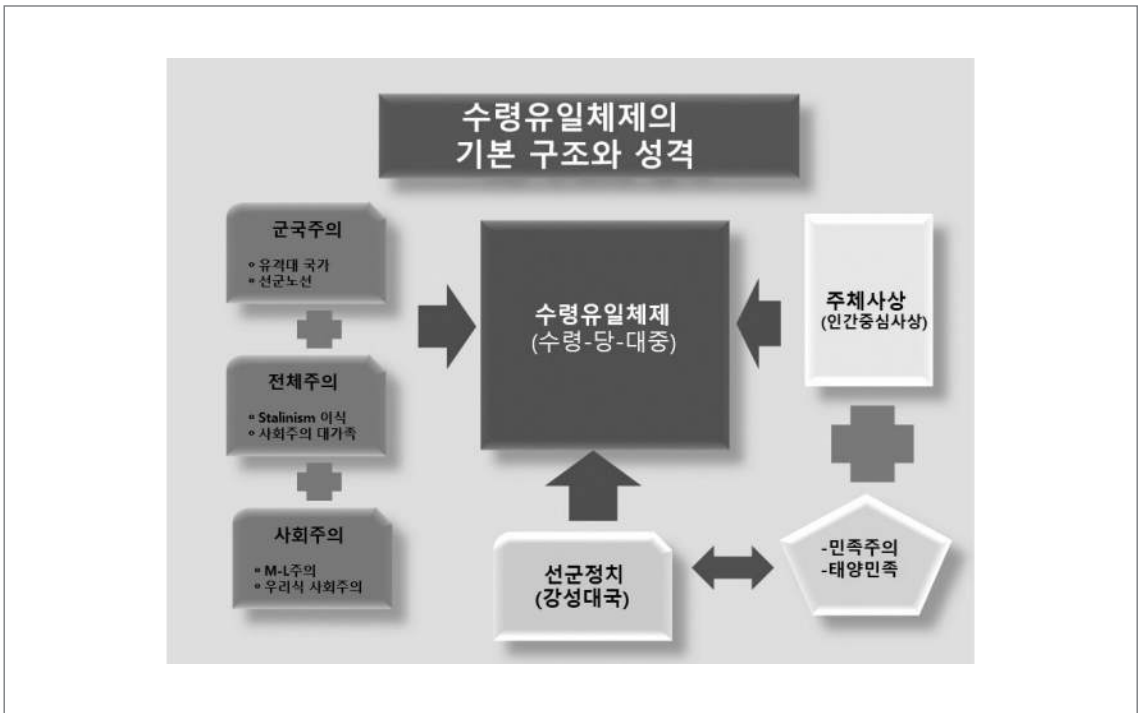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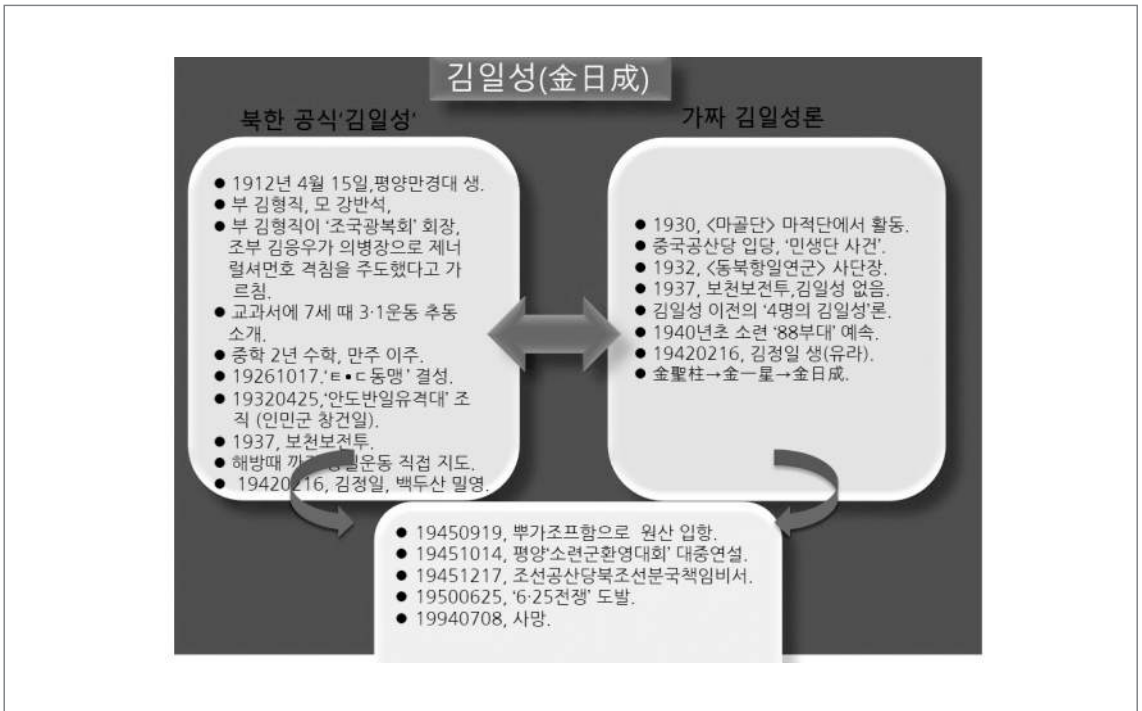
- 북한에서의 역사교육은 김일성의 우상화와 신격화의 도구로 전락.
- 역사를 왜곡, 날조해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정당하고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함.
- 초급중학교 1학년 도덕교육 내용 구성은 첫째, ‘백두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을 가루는 내용은 ‘7장 자사고개나 안고사는 그리움’과 같이 독립된 단원으로 존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업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소학교와는 다른 구성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음.
- 주목되는 기술방식은 교과서 첫 머리에 소년단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을 제시하는 ‘학생소년들이 도덕생활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의 1항이 ‘백두절세위인’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제시하고 있음.
- “1.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것이 제1항에 제시됨.
- 사회주의도덕 과목의 근본적 목표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임을 보여줌.
- 수령을 위한 도덕성을 강조. ‘1. 우리생활과 도덕’은 ‘1) 우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품의 소중함을 제시하는 도입글로 시작함.
- 7과 전체가 ‘백두절세위인’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은혜에 대한 고마움 등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음.



## 5. 현행 대한민국 사회 교과내용의 문제점

- 문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거짓 역사를 전파는 것임.
  - 현재 교육 과정에서 도덕, 윤리는 중학교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
  - 공통교육과정이나 선택교육과정에서 '근대적 개인' '자유' '선택', '자기 책임'이라는 가치는 거의 다루지 않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인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도 없음.
  - 선택 교과인 <윤리와 사상>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지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론은 소개되어 있지 않음.
  - '개인', '자유', '선택', '책임', '시장'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제7차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경우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라는 제1단원에서부터 1학년 학생들은 '사회적 존재'로 귀속됨.
- 교과서에 따르면 '개인'으로서의 자아는 친구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만 한정될 뿐, "개인은 항상 집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배려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존재"로만 기술되어 있음.

- 2단원에서 '복지'를 접하는데 이 단원은 '모든 인간은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보편적 인권논리를 앞세우며, 국가로부터 '의식주'나 '일자리'를 보장받을 때 인간으로 존엄성을 가질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어 청소년, 여성, 노인, 근로자에서부터 중소기업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지정하며 국가에 의해 부양할 의무를 지우는 무차별적 약자 지정을 하고 있음.
- '개인은 악, 집단은 선', '약자 대 강자', '노동자 대 기업가'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눈을 뜬 학생들은 '합리적 선택과 삶'이라는 3단원에서 비로소 현실경제에 대한 내용을 접함.
- 기본적으로 '평등=정의' '불평등=자유'라는 관점에서 사회역사 교과서를 기술함.
- 그런데 이 단원에서 조차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음.
- 처음부터 등장하는 주제가 '고령화에 대한 대처방안'임. 정부는 고령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하고, 보육시설 등을 증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어 모든 교과서가 첫머리서부터 최저임금제를 소개하며, 심지어 이를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까지 기술함.







남북 미디어 속 인천상륙작전

이하나(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홍영의(국민대학교)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홍영의(국민대학교)

## I. 머리말

오늘날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 ‘개경(開京)’이라 불렸으며, ‘송도(松都)’·‘송경(松京)’이라고도 하였다. 개경은 919년 고려의 수도로 정해진 뒤로, 강화로 천도했던 40년을 제외한 400여 년 동안 수도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기까지 수도였고, 또 1399년(정종 1)부터 1405년(태종 5)까지 7년 동안 수도였다.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도 ‘기명지(基命地)’로서 어향(御鄕)과 같은 곳이었다.

조선초기의 문신인 신숙주(申叔舟)는 ‘개성은 구도(舊都)이므로, 옛날대로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도성 가운데에 구가(舊家)의 유기(遺基)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였고, 이승소(李承召) 역시 ‘송도는 오백년 옛 도읍인데 안팎으로 산하의 장대함이 있고, 고금으로 인물의 자취가 남아 있어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람 다닌다’고 할 정도였다. 개성부가 조선의 구도라는 인식은 성종대까지도 ‘개성부는 고도라서 백성이 조밀하고 임무가 극심하다’고 하거나 ‘개성은 구도로서 능침(陵寢)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조선 초기의 국왕들은 개성을 방문하여 목청전(穆淸殿)이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등의 왕릉을 참배하였고, 사대부들은 개성의 명승지를 돌아보고 옛 유적지를 찾아보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개성 일대는 400여 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고려의 문화재를 비롯한 조선시대 유적이 많이 분포해 있다. 즉 개성 일대에는 궁성을 에워싸고 있던 나성·발어참성·내성 등 성곽, 만월대 등 궁궐터와 관청, 만수산 주변의 수많은 왕릉, 송악산과 천마산·성거산 주변의 절터 등의 유적지가 잔존해 있다. 고려 인종 때만 해도 회경전이 있던 만월대 주위의 궁궐의 전각이 58개가 있을 정도였다. 또 만수산 중심으로 한 개성 일대에는 59기의 왕릉과 개성 주변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었다.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고려시대 사찰 이름만도 127개나 된다.

1399년 권근(權近)이 「연복사탑중창기(演福寺塔重創記)」를 지을 때만 해도 “사원과 사묘의 건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아 서로 바라다 보이는 것이 천하에 가득하다. 우리나라는 신라 말부터 부처를 섬김이 정성스러웠다. 성안의 사찰이 민가보다 더 많았으며 그 중에도 전각이 크고 웅장하면서 높고 특출한 것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으니 그 당시의 숭복함이 지극하였음을 잘 알겠다”라고 하거나, 조선중기의 문인으로 활동했던 개성 출신의 차천로(車天輅)는 “이름난 사찰만도 성안에 300곳이 있었다”고 하였듯이, 당시 개경에 있던 사찰의 번성을 말해 준다.

그러나 개경은 고려 멸망 후 고려의 수도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뒤 1백년을 지나지 않아 폐허로 변하였다. 궁궐과 사원은 대부분 사라졌고, 왕릉 역시 피장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많았던 개경의 전각과 사찰들은 언제부터 제 모습을 잃어 갔던 것일까? 그리고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는 동안 사라졌거나 현재 남아 있는 왕릉과 절들은 얼마나 될까?

이 글은 고려 수도 개경의 문화유적이 조선시대 어떻게 변모되었으며, 여기에 있던 수 많은 유적과 유물은 언제 멸실되고,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 것일까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가운데 현재 개성에 남아있는 문화 유적과 유물을 통해 당대 개경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 그 사라진 유물들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자 한다.

## Ⅱ. 고려의 상징 만월대와 국왕들의 혼령이 깃든 만수산

만월대는 개성시 송악동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다. 회경전(會慶殿) 축이 자리한 고려 궁성의 주요 전각이 있던 곳이다. 개성 시내에서 보면 북쪽 끝에 자리한다. 인종 당시의 정전인 회경전과 장화전·원덕전을 중심으로 승평문·현무문·동화문·서화문 등 4개의 문으로 구성된 입구와 구정(毬庭), 그리고 회경전 동쪽의 왕실 서적을 보관하는 임천각 등의 전각들이 있었다.

만월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궁궐은 현종 때의 거란 침입, 인종 때 이자겸의 난, 고종때 몽골 침입 등을 겪으며 여러 차례 소실과 중건을 반복했고, 마지막으로 궁궐이 불에 탄 것은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침입한 때인데, 그 후 만월대-회경전 축은 재건되지 않았다.

고려의 궁궐은 크게 태조 때(수도건설 당시~성종), 현종 때(거란침입 이후), 몽골침입 이후(고종~개경한도 후) 홍건적의 침입과정에서 크게 변모되었다. 대체로 고려초기의 정궁은 천덕전(天德殿)이, 성종과 현종 때는 건덕전(乾德殿)과 회경전이, 인종 16년 이후에는 선경전(宣慶殿)과 대관전(大觀殿)이, 고종 이후에는 본궐로서 선경전(宣慶殿)과 강안전(康安殿)이 이용되었다. 원 간섭기 이후에는 주로 연경궁(延慶宮)과 수창궁(壽昌宮)이 수강궁(壽康宮)·수녕궁(壽寧宮) 등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 간섭기 이후의 고려 궁궐은 주로 연경궁과 수창궁이 국왕의 정치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기존의 강안전·대관전과 같은 의례의 중심 공간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말았다. 충선왕에 의해 강안궁과 연경궁이 중수되지만, 정궁으로 사용하던 연경궁이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입으로 불타고 말았기 때문에 공민왕대까지 본궐-연경궁 체제로 유지되었던 고려 궁궐의 위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말았다. 공민왕 때 추진된 수창궁의 복구가 우왕 때 이루어지면서 추동궐(楸洞闕) 대신에 정궁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양왕이 즉위하여 수창궁에서 정사를 보는 등 정궁의 지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다.

만월대는 정전 기단 또는 더 전체를 가리켜 부르는 명칭으로, 고려 때 붙여진 이름은 아니다. 빈터만 남아 있는 고려 궁궐의 옛 모습을 보고 뒷날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불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만월대를 정전 앞 계단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마치 원래의 이름인양 통용되었다. 『중경지』에서는 남효온(南孝溫)의 견해를 빌어 “망월대(望月臺)가 궁궐 안에 있었는데 이와 발음이 비슷한 만월대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사천백남선생유고(沙川伯南先生遺稿)』에는 1382년 7월 16일 밤에 문하부사 남을진(南乙珍)을 비롯한 예의판서 민안부(閔安富), 직제학 안성(安省), 문하시중 정몽주(鄭夢周), 장령 서견(徐甄), 예부상서 김주(金澍), 추밀학사 이종학(李鍾學), 전증판사 정광(程廣) 등이 만월대에 모여 놀면서 각자 한 구절씩 지어 완성한 연구시(聯句詩)가 있다. 이로 보면 흥건적 침입을 겪은 1361년 이후부터 불리어진 이름인 것 같다.

개성 남대문에서 남대가 북쪽 북향으로 버스로 10여분 정도 가면, 광명천(금천)을 따라 시멘트로 만들어진 만월교(금교)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신봉문터가 있다. 정면 7칸(27m), 측면 4칸(11m)으로 된 신봉문터에는 지금도 3개의 문길을 가진 2층 문루의 장엄했을 옛 모습을 상상케 하는 주춧돌이 남아 있다. 서쪽의 구릉 언덕에는 놀리문이 보인다. 창합문 터를 지나자 곧이어 4개의 33계단이 보인다. 이 계단이 만월대로 올라가는 길이다.

한 계단 한 계단 헤아리면서 오르면 넓은 터가 고려의 정궁(법궁)인 회경전 축이다. 회경문 터를 지나 궁성 안에는 중심전각인 회경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각과 관청들이 널려 있었지만, 지금은 회경전·장화전·원덕전 터의 주춧돌만이 풀숲에 누워 있다. 동서 373m, 남북 725m 정도의 대지에 건립된 궁성 주위에는 13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 정동문인 광화문(廣化門)은 남대가 등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광화문의 위치는 1940년경에 있었던 남성병원의 북쪽 기슭과 인삼제조장 사이의 광화교 부근이라 추측되나, 그 유지는 찾아볼 길이 없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는 만월대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만월대의 기단 석축이다. 지금의 모습보다 기단의 석축과 계단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는 2개의 계단만 보이지만 실제로 3개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만월대의 모습은 작자미상의 『송도사장원계회도병(松都四壯元契會圖屏)』의 <만월회고(滿月懷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만월회고>는 가을 만월대 주변의 풍광을 묘사한 것이다.

송악산을 배경으로 한 이 그림에는 산라작 주봉 위로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만월대 뒤편에는 발어창성과 그 아래로 송악산성, 성황당봉수가 있다. 그 밑으로 황량한 옛 궁궐터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여러 채의 민가들이 보인다. 땀감을 지고 서로 대화하고 있거나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인물 등의 표현에서는 간절한 필치가 돋보인다. 만월대는 2단으로 높게 처리하고 있는데, 정면의 세 계단과 동쪽에 계단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또 만월대 서쪽에 위치한 고려시대 천문대인 첨성대의 축대 모습과 거친 궁터 곳곳에 단풍이 보인다. 만월대는 1973년부터 1974년 사이에 북한에서 발굴되

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남북공동발굴사업을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4차에 걸쳐 발굴하였다.

만월대 서쪽 길 건너 구릉에는 1749년에 세워진 홍관(洪灌)의 비가 있다. 홍관은 이자겸의 난 당시 목숨을 던져 인종을 구한 사람으로, 왕의 정전인 집상전(集祥殿)과 회경전(會慶殿) 병풍에 『서경』의 무일편(無逸篇), 그리고 보문각(寶文閣)·청연각(淸讌閣) 등의 편액을 썼다고 알려졌다.

또 서북쪽 잡목 사이에는 천문대가 있다. 개성을 유람한 사람들은 간의대(簡儀臺)로 보았다. 현재는 축대만 보존돼 있는데, 화강석의 재질로 축대의 높이는 2.8m, 한 변의 길이는 2.6m이다. 한 변의 길이가 3m인 정사각형 부지에 80cm×85cm의 사각 초석 다섯 개를 네 귀퉁이와 가운데 부분에 놓고, 그 위에 단면이 한변의 길이가 약 38cm인 정사각형 모양에 높이가 2.45m인 사각 돌기둥 다섯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굵고 긴 돌 다섯 개와 얇고 넓은 판돌 여섯 개를 짜서 윗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윗면 네 귀퉁이에는 직경 12cm에 깊이 약 9cm인 둥근 홈이 파여 있고, 서쪽 변에는 직경약 4cm에 깊이 약 3.5cm의 작고 둥근 홈 둘이 파여 있다. 보의 연결 부위는 홈을 파고 거기에 맞는 철판을 끼워 넣어 변형이 없도록 했다. 최근 첨성대 주변에서 기둥 돌 비슷한 부재들이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기초하여 축대 위에 2층짜리 건물이 서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도지』에 “첨성대가 만월대 서쪽에 있다”고 한 기록이 가장 오랜 것이다. 또한 『개성지』에는 이것을 고려시기의 천문 고적으로 취급하면서 “만월대 서쪽에 있다. 돌기둥으로 된 방형의 망루모양인데 너비가 7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옛적에 그 위에 천상을 관측하는 기계가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담쟁이가 무성하고 고색 창창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앞서 언급한 「송도 사장원계회도병」의 〈만월회고〉에도 만월대의 고려 왕궁 터와 함께 곁에 있는 첨성대가 지금의 모습대로 그려져 있다.

이 첨성대의 이름은 1912년에 일본의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는 고려조 천문대의 유지(遺址)일 것이라고 한 이후,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천문학자 루퍼스(W.C.Rufus)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부터 우리에게 천문대로 인식되었다.



작자 미상의 1772년의 만월대



김홍도의 1804년경의 만월대



19세기 이후의 고지도의 만월대





1909년 순종의 만월대 시찰



『조선고적보도』만월대 전경



일제엽서의 1920년대 만월대

한편, 개성의 서문 밖에는 만수산(萬壽山, 228m)이 있다. 송악산 서쪽에 있는 이 산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조선 건국에 동참할 것을 헤아리려고 읊은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만수산 드령참이 얹혀진들 어찌하리. 우리도 이 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하는 시조에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개성 송악산 북쪽과 만수산의 남쪽 일대에는 고려시대 왕과 왕후의 무덤 20여 기가 남아 있다. 개성역 사유지에 포함된 왕릉은 태조 왕건릉(국보유적 179호)과 공민왕릉(국보유적 123호), 고려 29대 충목왕의 무덤인 명릉과 인근 무덤,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무덤군인 칠릉떼 등이다. 만수산 남쪽 두문동(杜門洞)은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반대하고 끝까지 고려에 충절을 지킨 ‘두문동72현’의 한이 어린 곳이기도 하다.

고려의 왕릉들은 오랜 세월과 조선 때 이루어진 개·보수 등으로 그 원형이 크게 변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 그 기본구조를 살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 왕릉은 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아 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가 능 뒤의 주산(主山)에서 좌우로 뻗어내리고, 명당수(主水)는 능의 우측 즉 서쪽에서 시작하여 능 앞 동쪽으로 흘러가는 지세의 가운데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묘역의 선정은 풍수지리사상에 의한 명당자리를 택한 것으로 보이며,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오행사상이 고려시대에 일대를 풍미하였고, 그대로 조선시대에까지 계승된 형태로 보여진다.

능역은 대략 동서 약 18m, 남북 약 36m의 장방형 구역의 3면에 돌담을 돌리고, 다시 구역 안을 위에서 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낮아지는 4단의 단을 만들어 상설하고 있다. 가장 위 1단에는 봉분과 석상 망주석, 2단에는 장명등을 사이에 두고 문인석을 세우고, 3단에는 무인석, 4단에는 정자각을 비롯한 능비를 세웠다.

능의 봉분은 높이 3~5m 정도, 직경 6~9m 정도로 신라 왕릉처럼 봉분 아래쪽에 면석과 12지 호석을 돌렸고, 그 밖으로 난간석과 석수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명종의 지릉(智陵)에서 보듯이 석실은 장대석으로 네 벽을 쌓고, 판석 3장으로 천장을 덮고 있으며 바닥은 전(塼, 벽돌)을 깔고 현실의 남쪽 중앙에 입구를 만들어 그 앞을 판석 1장으로 막아놓고 그 밖은 적석으로 보강하고 있는 양식으로 연도(羨道, 널길)가 없이 입구를 통하여 매장한 형식을 보인다. 그리고 일부 고려 왕릉에서는 성신도(星辰圖, 별자리)를 비롯한 벽화가 그려지기도 하였다.

왕건릉은 개풍군 해선리에 위치해 있다. 송악산의 지맥인 만수산 등성이에 자리하고 있는 왕건릉의 정식 능호는 현릉(顯陵, 국보유적 179호)이다. 현릉은 현재 왕건과 그의 첫째 부인 신혜왕후 유씨를 함께 묻은 단봉(單封) 합장릉(合葬陵)이다. 능 입구에는 13m의 정문이 홍살문 대신 서 있으며, 우측에는 김일성 주석이 친필로 썼다는 개건비가 우람하게 서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비각이 있는데, 1867년(고종 4) 현릉을 수리할 때 세운 신도비와 개수기실비가 서 있다. 신도비에는 왕건의 본처인 신혜왕후 유씨를 합장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개수기실비는 1867년 당시 개성유수인 김수현(金壽鉉, 1825~?)이 왕명으로 왕릉을 중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입구의 좌측에는 정자각과 묘지기실이 있는데, 정자각은 6·25전쟁 때 파괴되었다가 1954년에 복구된 것이다. 정자각 내부 벽면에 태조의 영정과 능행도·서경순주도 등으로 왕건의 일생을 그려 놓았다.

태조 왕건릉은 943년에 조성되었으며, 현릉은 선의문(宣義門) 서보통사(西普通寺) 서쪽 오동방(梧桐坊)에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송악산 서쪽 파지동(巴只洞) 남쪽에 있다고 했다. 현릉은 거란과 몽골의 침입 등으로 부아산(負兒山, 삼각산) 향림사(香林寺), 강화 봉은사(奉恩寺), 개성 이판동(泥板洞) 등 서너 번에 걸쳐 이장된 탓에 이곳이 그 파지동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왕건릉 내부 벽화와 1993년 개건 당시 능 북쪽 지점에서 출토된 왕건상으로 추정되는 주상(鑄像)이 이곳이 왕건릉임을 확고히 해주고 있다.

1993년부터 새로 정비된 왕건릉은 총 1만 7천 평에 능 면적만 7,500평이며, 무덤은 아래 직경이 19m, 높이 8m, 무덤간 바닥으로부터 봉분까지의 높이는 10m이다. 북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크기는 무덤의 직경이 11m, 높이 6.5m였다고 한다. 봉분 둘레에는 12각으로 호석(護石)을 세우고 그 밖으로 난간석을 둘렀는데, 호석은 재건 당시 화강석으로 다시 새겨 놓은 것이다. 호석의 지름은 19m이다. 무덤의 네 귀에는 화강석으로 만든 호랑이가 놓여 있으며, 앞에는 상돌과 망주석, 석등 등이 있다. 왕릉이 있는 곳보다 조금 낮은 둘째 단과 셋째 단에는 개국공신을 비롯한 8명의 측근 신하들의 인물상이 4명씩 양 옆에 서 있다.

무덤의 방위는 약간 서쪽으로 틀어진 남향이고 무덤 안은 석실로 되어 있다. 봉분 좌측의 현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지나면 복구하기 전에 왕건릉의 병풍석으로 쓰인 12지신상이 좌우에 늘어서 있다. 현실로 들어가면 유리벽 너머에 좌우로 한국회화사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세한삼우(소나무·대나무·매화)' 벽화와 사신도가 있었으며, 관대 위에 왕릉 출토 유물의 모조품을 전시해 놓았다. 무덤 안에는 2m 정도의 판석으로 된 관대가 놓여 있으며 동쪽 벽에는 왕대와 매화·청룡이 그려져 있고, 서쪽 벽에는 노송과 백호가 그려져 있다. 북쪽 벽의 벽화는 도굴로 파괴되어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루가 그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청룡·백호 등의 벽화는 고구려 때부터 많이 그려져 왔으나 왕대와 매화·노송은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190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한국에 왔을 때 비교적 자세히 조사한 바가 있는데, 당시의 조사에

서는 도굴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종실록』에는 고종 43년(1906) 1월 16일자에 ‘예식원장예경(禮式院掌禮卿) 남정철(南廷哲)이 음력 11월 8일 밤에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이 고려왕조의 현릉을 파헤친 문제를 보고하였다’고 한 내용을 보아 도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차 도굴이 있는 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사할 때 또 다시 도굴을 당하여 광의 일부가 함락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조선평사』 현릉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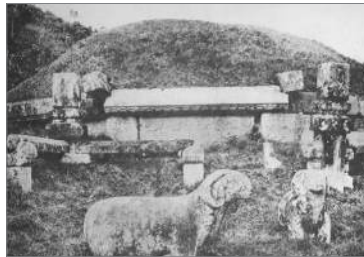
일제엽서의 1920년대 현릉 원경



일제엽서의 1920년대 현릉 전경



『조선평사』 공민왕릉 전경



『조선평사』 공민왕릉 측면



일제엽서의 1920년대 공민왕릉

한편, 왕건릉 주변에는 공민왕릉 · 칠릉떼 · 명릉떼 · 선릉떼 · 고릉 등이 자리하고 있다. 왕건릉 뒤편으로 1km쯤 떨어진 지점에 7릉이 있으며, 서남쪽에는 공민왕릉이 자리하고 있다. 공민왕릉(국보유적 123호)인 현릉(玄陵)과 왕비 노국공주의 능인 정릉(正陵)은 개풍군 해선리 봉명산 무선봉의 산중턱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릉은 1365년 노국공주가 난산 끝에 죽자 공민왕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7년간에 걸쳐 건설한 것으로, 웅장한 규모와 뛰어난 장식기술을 자랑한다. 1372년에 자신의 사후를 위해 만들어 둔 수릉(壽陵,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능)과 함께 전례 없는 쌍릉(雙陵) 형식으로 만들어 쌍릉 제도의 시초로 평가받기도 한다. 동쪽의 것이 정릉이고 서쪽의 것이 현릉이다.

무덤 구역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3개의 층단과 맨 아래의 경사진 층단으로 되어 있다. 공민왕의 무덤은 왕비의 무덤과 함께 그중 동서 40m, 남북 24m 정도 되는 상단 한 가운데에 나란히 놓여 있다. 공민왕릉의 봉분은 지름 13m, 높이 6.5m이다. 화강암으로 12각의 호석을 돌리고 그 면석에 구름을 탄 12지신과 연꽃무늬를 섬세하게 새겼다.

그 밖으로 난간석을 돌렸다. 이밖에 맨 윗단에는 한 쌍의 상석(훈유석) · 석수(石獸) · 망주석이 있다. 특이한 점은 능앞 제1단과 제2단 사이에 각각 돌계단이 하나씩 있고, 그 앞에 장명등(長明燈)이 하나씩



있으며, 그 좌우에 문인석이 2쌍 서 있다. 제3단에는 무인석이 2쌍 서 있다. 경사진 단 아래에는 최근에 복구한 정자각이 있다.

무덤은 석실봉토분이며, 널길과 널방으로 이루어진 단실묘이다. 널방은 가로 2.97m, 세로 3m, 높이 2.3m이며 화강암 판석으로 쌓고 평천장으로 하였다. 널방의 남쪽 벽 중앙에 만들어진 널길은 길이 9.1m, 너비 2.04m, 높이 1.82m이다.

공민왕릉 무덤 안에는 왕건릉처럼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먹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색을 칠했다. 천장에는 해·북두칠성·삼태성이 뚜렷하고 동·서·북향 벽면에는 12지신이 그려져 있었으나, 일제의 도굴 당시 하나가 훼손돼 지금은 11개만 남아 있다. 12지신상은 구름을 타고 손에 홀을 쥐었으며, 머리에 관을 쓴 인물상이다. 관 위에는 각각 방위에 해당하는 동물의 머리가 그려져 있다. 널방의 동벽에는 가로 38cm, 세로 43cm 정도 되는 문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네모난 구멍, 이른바 혼 구멍이 있어 정릉과의 연결을 표시했다. 고려 말기의 능(陵) 형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고려 왕릉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좋다.

그러나 공민왕릉 역시 일찍부터 부장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도굴꾼의 표적이 되었다. 이마니시 류의 기록에 따르면, ‘본 능은 이미 도굴한 흔적이 명백하다’고 하며, 풍설에 의하면 ‘이미 3,4회 도굴의 화를 입었다고 한다’라고 전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도굴의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22년에는 큰 비로 후방이 붕괴되어 봉토의 일부가 함몰되었는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도굴되었기 때문에 붕괴되었을 것이라 짐작하여 1927년에 오다 소고(小田省吾)가 시찰하였고, 1928년에 정릉의 봉토가 붕괴되어 석곽이 노출되어 1929년 2월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와타나베 아끼라(渡邊彰), 오가와 게이기치(小川敬吉)가 조사위원으로 파견되어 조사한 후 다시 수축하였다.

이렇게 1905년경부터 폭약을 터뜨리는 일제의 도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온전히 남은 석재로 보수한 탓인지 왕건릉에서 느끼지 못한 왕릉다움을 느끼게 한다. 1956년 개성시 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서 다시 수리했다. 이때 무덤 구조와 내부 시설을 조사하고 벽화를 옮겨 그렸으며, 현재 고려박물관 동재에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정자각 뒤편에는 이색(李穡)이 찬한 ‘광통보제선사비(廣通普濟禪寺碑, 국보유적 152호)’가 있다. 이 비는 공민왕과 그 왕비인 노국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던 원찰의 건립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노국공주가 난산 끝에 1365년(공민왕 14)에 죽자, 공민왕은 광암(光巖) 골짜기에 정릉(正陵)을 축조하고 아울러 자신의 사후를 대비한 능(현릉)도 같은 곳에 만들도록 한 후, 주변에 있던 광암사를 원찰로 지정하여 광통보제선사로 바꾸었다. 1372년(공민왕 21)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민왕은 사찰의 건립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 위하여 중국에서 좋은 돌을 구해오게 하고 이색과 한수(韓修)에게 각기 비문을 짓고 쓰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1374년(공민왕 23)에 승하하였고, 비문은 공민왕 사후 3년 뒤인 1377년(우왕 3)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당시 복잡한 정세를 읽어낼 수 있다.

명릉은 충목왕의 능으로 개풍군 중서면 여릉리 명릉동에 있다. 충목왕은 원나라에 볼모로 가 있다가, 1344년 선왕인 충혜왕이 죽자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했다. 모인 덕녕공주의 섭정아래 1347년(충목왕 3)에는 폐정을 바로 잡으라는 원나라 황제의 명에 따라 정치도감(整治都監)을 설치하고, 여러 도의 토지를 측량하게 하였다. 이때 기황후의 친척인 기삼만(奇三萬)이 남의 토지를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 발각되어 옥에 갇혔다가 옥사하자, 정동행성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는 정치관들을 구속하고 정치관들을 국문하고 장형(杖刑)에 처하기도 했다. 충목왕은 1348년(충목왕 4) 12월 정묘일에 12세로 김영돈의 집에서 죽었는데, 다음해 3월 정유일에 명릉에 장례지냈다. 능역은 협소하며 평지로부터 약 12척(尺) 높이의 단면 위에 있다. 능의 높이는 6척 8촌, 직경은 27척이었다. 병풍석(屏風石)은 원래 12각이 었으나 도괴되어 잔석을 모아 원형으로 보수하였다. 난간석(欄干石)의 잔석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능 앞에 1395년(태조 4)에 세운 능비(陵碑)가 있다. 석수(石獸) 4구가 남아 있다. 이외에도 주위에는 이름 모를 능 2기가 더 있다. 이를 합쳐 명릉떼라 한다.

칠릉떼는 왕건릉 뒤편 능선을 넘어서면 골짜기 건너편의 만수산에서 시작된 긴 능선이 골짜기에 동서 방향으로 7기의 능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서 불리우는 이름이다. 무덤 건축형식으로 보아 왕릉급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1, 2, 3능의 순서로 부른다. 발굴된 무덤들은 모두 돌로 무덤간을 만들고 회죽 미장을 한 평천정의 외칸이다. 그 중 7능의 천정에는 별그림이 그려져 있다. 무덤의 외부시설은 무덤무지 아래 12각으로 병풍 돌을 두르고 그 밖으로 난간석과 석수를 배치했으며, 무덤 앞으로는 상석과 망주석·석등·문인석을 배치했다.

1662년(현종 3)에도 이 무덤들의 주인을 알 수 없어 무덤의 숫자로서 ‘칠릉(七陵)’으로 불리었다. 당시 능 봉분의 태반은 훼손되고, 초목이 무성했으며 사면의 석물 태반이 매몰되어 있었다고 한다. 1755년 영조 때 칠릉의 표석이 세워졌다. 이 가운데 서쪽으로부터 3,4,7호분은 1916년에 이미 도굴되었다. 1916년 10월 10일 총독부 기수 세키야 다카키(關谷長之助)와 일본인 인부 3명이 그 내부를 조사하여 도굴꾼이 3회에 걸쳐 침입 약탈하였음을 밝혔다. 이때 조사 중에 황금제 관식·황금불상·동전 등을 수습하였다. 또 1930년 12월 중순에는 1,2호 고분에 대해 도굴꾼에 의해 도굴이 자행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일도 있었다.



『조선고적도보』 명릉(충목왕)



『조선고적도보』 명릉떼 2릉



『조선고적도보』 명릉떼 3릉



『조선고적도보』 칠릉매 1릉



『조선고적도보』 칠릉매 1릉 우측



『조선고적도보』 칠릉매 3릉 정면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칠릉골 전경(통일뉴스 사진, 2013년 8월 22일자)

고려 왕릉은 1208(희종 4)년에 무릉(武陵)과 5,6기의 능이 도굴된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1253년(고종 40)과 1256년에는 강종의 능인 후릉(厚陵)과 예릉(睿陵)이 도굴되기도 하였다. 1288년 의릉(義陵)을 도굴하여 은기(銀器)를 가져갔고, 공릉(恭陵)도 도굴되었다. 전란을 피하여 이장되기도 하였는데,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피하여 태조의 재궁(梓宮)이 서울 삼각산의 향림사(香林寺)에 옮겨오기도 하고, 1232년(고종 19)에는 몽고의 침입에 따라 태조와 태조의 부친인 세조(世祖)의 재궁을 강화도로 옮겼다가 개골동(蓋骨洞)에 이장하고, 1276년(충렬왕 2)에 다시 본래의 현릉에 복장(復葬)하기도 하였다.

고려 태조 이래 공양왕대까지 34대에 이르는 왕릉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일부만 국가의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릉은 조선건국 후에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 여러 번의 보수를 거치고, 능지기가 있어 명절 때는 술과 고기를 조출하게 장만하여 묘소에 올렸다. 그러나 고려 멸망 1세기 만에 왕건의 능도 텅굴에 덮여 있었고, 충정왕과 충혜왕의 무덤에도 확실한 빗돌이나 꽃말은 없었다. 이런 모습은 나머지 왕릉들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폐망한 왕조의 왕릉이 제대로 관리되기는 어려웠다.

1401년(태종 1) 1월에 태조 왕건의 현릉에 속호(屬戶)를 정하여 수호하게 하되, 시지(柴地)를 주고 부역을 면제하여 초목(樵牧)을 금하게 하고, 그 나머지 능실(陵室) 주변에 이미 쓴 무덤을 모두 다 파내

도록 하여, 군신의 의리를 밝히자고 한 이후, 1406년(태종 6) 3월 고려의 8개 왕릉 즉 현릉, 혜종·성종·현종·문종·원종·공민왕의 능에는 각각 수호인과 토지를 주어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1432년(세종 14)에는 무너진 고려의 능묘를 다시 수리하고 초채(樵採)를 금하였고, 1456년(세조 2)에는 양성지(梁誠之)가 고려 이전의 나라가 도읍했던 개성·강화·경주·평양·공주·부여와 김해·익산 등지의 능묘가 있는 곳을 자세하게 살피게 하여 공덕의 차이에 따라 수릉호(守陵戶)를 차등을 두어 관리하자는 건의에 따라 고려 왕릉에 대한 관리제도가 마련되었다. 1662년(현종 3)에는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된 태조 현릉을 비롯한 43기의 고려 왕릉에 예관을 파견하여 수축케 하였고, 능에 표석을 세워 일정 구역 내에서 투장(偷葬)을 하거나 경작을 금지토록 했다. 이후 3년마다 1번씩 고려 왕릉의 상태를 간심하여 보고하는 것을 정례화 하였다.

1818년(순조 18) 2월에 능의 능주가 확실한 30기에 표석을 세웠고, 능주를 모르는 왕릉급 능묘도 번호를 매겼다. 1867년(고종 4)에는 왕릉 57기의 능을 봉축하고 표석을 세웠으며, 그 내용을 「고려현릉개수실기비(高麗顯陵改修實紀碑)」로 남겼다. 한편, 이마니시 류의 「고려제릉묘조사보고서(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에 의하면, 경기도 일대의 고려 능묘는 53기였다.

한편, 조선 태조의 정비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제릉(齊陵)은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현재 개성 판문군 지동)에 있다. 이곳에 자리한 까닭은 조선건국 이전에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후릉(厚陵)은 개풍군 홍교면 홍교리에 있는 조선 제2대왕 정종과 비 정안왕후(定安王后) 김씨(金氏)의 능이다. 1412년(태종 12) 왕후가 죽자 능을 후릉으로 정하였으며, 1419년(세종 1) 정종이 죽자 왕비의 동원(同原)에 장례를 치렀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사대부 묘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과 서예가 석봉 한호,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묘가 주목된다. 화담 서경덕의 묘는 개성시 용흥동에 위치해 있으며, 앞에는 송도저수지가 있고, 북으로 멀리에는 오관산 연봉이 높이 솟아 있다. 묘의 시설로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상석과 묘 앞에 세운 비, 망주석이 있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1584년 서경덕의 문인인 박민헌(朴民獻)이 짓고 한석봉이 쓴 대리석 신도비가 서 있다.

서경덕은 개성 화정리(禾井里)에서 1489년 아버지 서호번(徐好蕃)과 어머니 한씨(韓氏) 사이에 태어났으며, 43세에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일이 있지만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평생 학문에만 힘썼다. 서경덕은 황진이(黃眞伊), 박연(朴淵) 폭포와 함께 이른바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부른다. 1575년(선조 8) 우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585년 신도비가 세워졌다. 개성의 송양서원(崧陽書院)·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1772년에 그려진 「송도사장원계획도병」의 〈화곡심방〉은 화곡서원(花谷書院) 주위의 뛰어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다. 화곡은 서경덕이 살던 곳으로, 이곳에 그를 기린 화곡서원이 있었다. 『중경지』



에는 화곡서원 일대의 경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 보이는 곳은 오관산 금세동(錦細洞) 골짜기이다. 이곳에 차일봉(遮日峰)이 있는데, 군왕소(君王所) · 선인소(仙人所)라고 부른다. 봉우리가 새 동지를 닮았으며, 바위가 크고 넓어서 옛날 군신들이 이곳을 찾아 차일을 치고 연회를 열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이 골짜기에 바위가 움푹 패여 이루어진 연못 화담이 있는데, 서경덕이 풍류를 즐긴 곳으로 경치가 뛰어나 그의 호 역시 이곳을 그대로 차용하였다고 한다. 그림에는 화담 위에는 서사정(逝斯亭)이 보인다. 서사정은 화담 위쪽에 있는 정자로 화담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연못 우측으로는 취벽(翠壁)이 깎은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마치 병풍 그림을 늘어놓은 것 같다. 또 연못 위에는 큰 반석(盤石)이 있는데 수십 인이 앉을 수 있으며 화담이 낚시를 즐기던 곳이다. 봄철의 서원 주위로는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다. 서원의 뒤쪽 산봉우리 아래에는 화담 서경덕 부모의 묘비(墓碑)가 아주 작게 보인다. 화담에서 북쪽으로 재 하나를 넘으면 개성시 장풍군 원고리에 있는 현화사(玄化寺) 옛터에 이른다.

### Ⅲ. 조선의 상징 건물 목청전과 경덕궁

개성의 고려 유적들과는 달리 조선 왕조의 창건과 관련된 유적지는 새로 중·개축되었다. 특히 태조의 생활공간이었던 잠저들은 궁으로 승격되고 관리되었다. 개성에 있는 대표적인 것은 이성계의 잠저였던 목청전(穆淸殿)과 태조와 태종의 잠저였던 경덕궁(敬德宮)이었다.

목청전은 현재 개성시 운학동에 위치한다. 이성계의 사저는 안정방(安定坊)과 남계방(南溪坊) 두 군데 있었다. 안정방 내 어배동(於背洞)에 있는 잠저가 목청전이다. 태조는 왕위에서 물러난 뒤 개성의 구궁(舊宮)에 머물기도 하였다. 1418년(태종 18) 태종이 개성에 거동했을 때 이곳에 전우(殿宇)를 짓고, 태조의 젊었을 때의 어용(御容)을 봉안하고 전직(殿直) 2인을 두어 매년 유명일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전우(殿宇) 옆에는 숭효사(崇孝寺)를 세우고 명복을 빌게 하며, 교종(敎宗)에 붙이고 쌀 2백결과 노비 35명을 주었다.

목청전의 처음 명칭은 계명전(啓命殿)이었다. 1422년(세종 4)에 세종은 고려 태조의 진전 이름과 같아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목청전으로 고쳤다. 1438년 세종은 개성에서 가서 친히 제릉에 제사하고 목청전을 배알하기도 했다. 1442년(세종 24) 5월에 판군기감사 이사임(李思任)을 보내어 영전(影殿)의 안정성과 청결을 살피고, 좌찬성 하연과 예조 판서 김종서에게 명하여 개성부에 가서 목청전을 고쳐 지을 집터를 살피게 하였다. 1442년(세종 24) 6월에는 함길도의 영흥부(永興府)의 준원전(濬源殿)과 함께 영전의 칭호를 내리고, 이듬해 정인지를 보내 태조의 어진을 보관하게 하였다. 세종은 개성부와 평양은 중국의 사신이 경과하는 곳이라 하여 만년(晩年)의 수용(睟容)을 봉안하게 하고 전주·함흥·경주에는 젊었을 때의 쉬용을 봉안하게 하였다. 태조의 영전이 보관된 것은 이곳이 바로 태조의 어향이었던기 때문이었다.

역대의 왕이 개성에 올 때면 목청전에서 다례(茶禮)를 올리고 그 기념으로 문·무과의 과거를 치르기도 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목청전이 불타고 태조의 영정도 소진되어 없어지자 주춧돌만 남은 빈 터에는 잡초만이 우거져서 오랜 기간 빈터로 남아 있었다. 광해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건을 꾀하였으나 전후복구사업 등 긴박한 일로 인해서 실행을 보지 못하고, 1657년(효종 8) 담장을 쌓고, 1693년(숙종 19) 8월의 낭원군(朗原君) 이간(李侃)의 목청전과 경덕궁의 실태보고, 10월에 개성부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목청전과 경덕궁을 중건(重建)을 통하자, 이듬해에 와서 왕이 이곳에 행하여 각(閣)을 중건하고 비(碑)를 세워 영구히 목청전이 있었던 곳임을 전하도록 하였다. 영조도 이곳에 행행하였으나 태조의 옛 집을 복구하여 다시 영정을 모시지는 못하였다. 해마다 개성부의 경력(經歷)을 집사(執事)로 임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나 정조 이후 제사를 폐지하였다. 1901년 영전을 짓고 태조의 어진을 걸고 재실과 행랑을 지었으나, 1908년 어진을 거두어 빈 집으로 남게 되었다.

현재는 정자각, 비각 재실과 담장만 남아 있다. 6.25 때 불타거나 파괴되었던 것을 1954년에 복구하였다. 1694년에 세워진 “목청전비계령경지비명(穆淸殿丕啓靈慶之碑銘)”라 전액되어 있는 비각은 권유(權愈)가 찬하였고 이정(李潐)이 글을 썼으며 제액(題額)은 권규(權珪)가 썼다. 비문에 의하면, 1418년(태종 18) 태종은 옛 도읍지인 개성에 행행(行幸)하여 태조의 옛집을 수리하여 목청전이라 이름하고 태조의 영정(影幀)을 모셔놓도록 하였다고 한다. 1592년(선조 25)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목청전이 불타고 태조의 영정도 없어졌으나, 효종 때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현종 때에는 나무를 심고 담장을 쌓아 봉금(封禁)하였다. 이후 숙종 때에 와서 숙종과 함께 후릉을 봉심하고 개성에 머물 때 왕손 낭원군(朗原君) 이간(李侃)이 목청전을 수리하고 비석을 세울 것을 건의하자, 숙종이 친히 비액(碑額)에 “목청전비계영경지비(穆淸殿丕啓靈慶之碑)”라고 제(題)하였다고 한다. 태조가 천명을 받기 전에 살던 개성에 있는 두 집(경덕궁·목청전) 중 하나인 목청전의 중창에 관해 기록한 사공비(事功碑)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성 중부 남계방(南溪坊)내 추동(楸洞)에 있는 경덕궁(慶德宮)은 추동궁이라 불려졌다. 개성시 남산2동에 위치한다. 태종은 추동에 있던 사저를 중수하여 경덕궁으로 삼고 수시로 이곳에 순행하였다. 경덕궁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고, 2대 정종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환도한 후 이곳에서 2년여 간 살았다. 그 뒤를 이은 태종 또한 1405년 한양으로 환도하기 전까지 궁으로 사용하였다. 태종은 수시로 이곳에 순행하였고, 왕위에 오른 뒤 더 넓혀서 짓고 궁으로 삼았다. 1418년 4월에 새 누각을 만들고, 7월에는 북량정(北凉亭)을 세웠다. 경덕궁은 한양으로 다시 환도한 뒤에도 후대 왕들이 구도(舊都)를 순행하거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을 참배할 때면 묵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옛터만 남아 있다. 경덕궁 앞으로는 부조현(不朝峴, 부주개)이 있으며, 그 북쪽으로 괘관현(掛冠峴)이 있다. 이곳 역시 1754년 영조 때 세워진 “경덕궁비계영경지비(敬德宮丕啓靈慶之碑)”가 있다.



일제엽서의 목청전 전경



일제엽서의 목청전 전경



일제엽서의 목청전 전경



『조선고적도보』 목청전 정전



일제엽서의 경덕궁 전경



일제엽서의 경덕궁 비각

#### IV. 충절의 상징 정몽주의 집터 송양서원과 선죽교 · 표충비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송양서원(국보유적 128호)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의 바위 위에 송덕비가 세워져 있는데, 『중경지』를 편찬하고 개성 유수를 지낸 김옥(金堉)의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문 입구에는 마상대(馬上臺) · 마하대가 있는데, 사면에 개와 사자 등이 조각되어 있다. 그러나 송양서원에 내려진 사액 현판이나 각 건물에 있어야 할 편액은 보이지 않는다.

송양서원은 1573년(선조 6)에 개성유수 남응운(南應運)이 유림들과 협의하여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고 아울러 서경덕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정몽주가 살던 집을 그의 시호를 따 ‘문충당(文忠堂)’을 세운 것에서 비롯하였다. 1575년 ‘송양(崇陽)’의 사액이 내려지면서 공식적인 서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1668년(현종 9) 이후 김옥(金堉) · 김상헌(金尙憲) · 조익(趙翼) · 우현보(禹玄寶) 등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1823년(순조 23)에 유수 김교근(金敎根)과 김이재(金履載)가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중건하고 사우와 강당을 중수하였으며, 1930년에 우상훈(禹相勳)이 보수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祠宇) · 강당 · 동재 · 서재 · 신문(神門) · 고자실(庫子室) 등이 있다. 숙종 · 영조 · 고종이 개성에 행차하였을 때에는 특히 견관치제(遣官致祭)하였고, 영조는 친필로 사액(賜額)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일 만큼 개성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었다.

장방형으로 두른 담장에 난 삼문으로 들어서면 마당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 서 있다. 3개의 계단으로 높은 축대 위에 오르면 강당이 있고, 또 그 뒤 담장에 난 삼문을 지나면 사당(문충당)에 이른다. 강당은 높은 기단 위에 흘림기둥을 세우고 두공 없이 지은 정면 5칸(12m), 측면 3칸(7m)의 합각지붕집이다. 건물 안의 가운데에는 마루를 깔았다. 양 편 옆 칸 중 앞쪽 한 칸은 마룻방과 이어진 뒷간으로 하였



고, 그 뒤에 온돌방을 배치했다. 사당은 그보다 더 높은 단 위에 세운 정면 4칸(9m), 측면 2칸(5m)의 겹처마 맞배 형식이다. 사당 앞의 좌우에는 비석 2개가 서 있는데, 정면에서 우측의 것은 1811년에 세운 포은선생서원비(圃隱先生書院碑)로 묘정비이며, 왼쪽의 것은 1872년에 세워진 송양서원기실비(崧陽書院記實碑, 보존유적 제1625호)이다.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개성의 유생들이 송양서원을 그대로 두도록 정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고 서원을 다시 수리한 후 그 내력을 적고 있다.

사당 왼편 주실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배향되어 있고, 협실에는 우현보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경덕·김육이, 우측에는 김상헌·조익이 배향되어 있다. 주실과 협실이 약간 변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진각 형식에서 맞배 지붕으로 고쳐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마도 배향된 위패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정몽주의 영정과 위패를 주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안치된 정몽주의 영정은 1575년(선조 8)의 가묘본(家廟本)을 토대로 몇 차례의 이모 과정을 거쳐 영조 44년에 한종유(韓宗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선죽교(국보유적 159호)는 개성 남대문에서 동쪽 약 1km 떨어진 선죽동의 죽방동 자남산 남쪽 개울에 걸쳐진 다리이다. 『고려사』 최충헌전에 선지교(選地橋)란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216년 이전에 이미 이 다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다리 부근에 선지서재(選地書齋)가 있어서 선지교라 하였다고 한다. 1400년(정종 2) 선죽교란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216년 이전에 이미 이 다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00년(정종 2) 선죽교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몽주 사후부터 불리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선죽교는 길이 8.35m, 너비 3.96m로서 선죽교 옆의 새 다리는 1780년(정조 4) 정몽주의 후손인 개성유수 정호인(鄭好仁)이 사람이 다니지 못 하도록 설치한 것이다. 다리의 동쪽 옆에는 석봉 한호(韓濩)가 썼다는 선죽교 비와 나란히 두 개의 비가 서 있었다. 비각 안에는 1641년(인조 19)에 목서흠(睦叙欽)이 세운 읍비(泣碑)가 있는데 “일대충의 만고강상(一大忠義 萬古綱常)”이라 쓰여 있으며, 비각 옆에는 정몽주와 함께 죽은 녹사 김경조(金慶祚)의 사적(事蹟)을 담은 녹사비[高麗鄭侍中綠事殉義碑]도 있다. 1797년 유수 조진관(趙鎭寬)이 세운 것이다. 다른 비각 하나에는 어디서 옮겨왔는지 모를 성여완(成汝完)의 유허비가 보인다.

선죽교 다리 밑 난간에는 자남산 인근의 부암봉 자락의 묘각사지에 있던 다라니당(陀羅尼幢)을 가져다 석재로 쓰기도 했다. 다리 서쪽에는 영조와 고종이 직접 쓰고 세운 표충비(국보유적 138호)가 나란히 비각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비는 조선왕조의 영조와 고종이 고려왕조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절개와 정신을 찬양하여 세운 것이다. 두 석비는 귀부위에 비좌를 마련하고 비신을 세웠으며, 이수는 목조건물의 팔작지붕 형식으로 올려놓았다. 비신은 흑색의 대리석이고 이수와 귀부는 화강석으로 되어있다. 한 개의 돌로 이루어진 귀부의 잔등에는 하엽형(荷葉形)의 연화비좌와 귀갑문 등을 돋우어 새겼으며, 이수의 처마 밑에는 용틀임 조각을 장식하여 비석의 기념비성과 장식성을 한층 더하여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석비는 조선시대 말기의 석비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물이며 당시 조각수법과 석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1740년(영조 16) 영조가 세운 비 앞면에는 ‘도덕정충선만고 태山高節圃隱公(道德精忠宣萬古 泰山高節圃隱公)’이라 되어 있고, 우측의 남쪽 비는 1872년(고종 9) 고종이 세운 비에는 ‘위충대절광우주 오도동방뢰유공(爲忠大節光宇宙 吾道東方賴有公)’이라 쓰여 있다. 선죽교에서 서북 방향의 자남산 쪽으로 가면, 내성의 동대문 터도 있고, 그 길에 우현보와 이제현 같은 인물들의 고택이 있었음을 알리는 비석들이 있다고 전한다.



일제엽서의 송양서원 전경



『조선고적도보』 송양서원 전경



일제엽서의 송양서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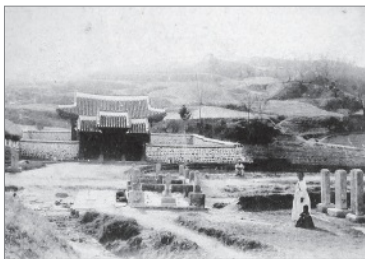
1923년 유리원판 선죽교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일제엽서의 선죽교 전경



선죽교 하부 기단의 묘각사 다리니당(국사편찬위원회)



일제엽서의 선죽교와 표충각



일제엽서의 표충각



『조선고적도보』 표충비

## V. 인재 양성의 산실 성균관

1988년부터 고려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균관은 송악산 동쪽 자락의 마암 북쪽 기슭 탄현문(炭峴門) 안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 말 건물로 조선 초기까지 가장 잘 유지 보존된 것 중의 하나가 성균관이었다. 고려 말부터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를 배출해 내던 성균관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하였다.

원래 이곳은 순천관(順天館)이 있던 자리이다. 문종이 창건한 대명궁(大明宮)이란 별궁이었으나 송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객관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고려 후기에 숭문관(崇文館)으로, 다시 성균관으로 불리면서 몇 번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1298년(충선왕 즉위)에 처음으로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뀐 후 여러 번 이름이 바뀌다가 1362년(공민왕 11) 이후 성균관으로 이름이 고정되었으며, 1367년(공민왕 16)에 숭문관 터에 중건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건물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에 건립된 것이다.

대성전에는 오성십철(五聖十哲)의 소상(塑像)을 봉안하였고, 동무와 서무에는 70제자 및 역대 여러 현인의 위판(位版)이 있었다. 전 앞에 명륜당이 있었다. 성균관의 성전은 ‘대성지성지전(大成至聖之殿)’이라 칭하였다. 이예(李芮)는 <의재기(義財記)>에서 ‘태조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이 부유후관(府留後官)을 삼으니, 성균관이라고 하던 것을 부의 사람들이 학당(學堂)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문묘(文廟)의 모습이 예전과 같고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화상이 엄연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다른 향학(鄉學)에 비할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1426년(세종 8) 4월에 개성 유수 김자지(金自知)는 ‘본사(本司)의 학당은 전조의 국학(國學)으로 인하여 선성십철(先聖十哲)의 초상(肖像)이 상엄(森嚴)하고, 묘당(廟堂)의 모양이 높고 커서 다른 군현의 학사(學舍)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고 하였다.

개성의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써의 위상은 상실하였지만 세종 때까지만 해도 지방의 향학 가운데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다.

성종은 1474년(성종 5) 9월에 능원(園陵)에 배알하려고 개성부에 거동하였다. 이때 성균관의 기둥과 서까래의 기울고 무너진 것, 창문과 기와 벽들의 깨지고 없어진 것, 단청 가운데 흐려져 선명하지 못한 것들을 고치고, 동무와 서무에 배향하는 위패 가운데 더러워진 것을 바꾸며, 조두(俎豆, 제기)의 누추하고 파손된 것을 새로 만들고, 제기 등을 새로 보충케 하고, 대성전에 선성과 십철의 소상 가운데 손상이 있는 것은 그대로 두되 성균관을 빨리 수리하게 하였다.

개성의 성균관은 학당 또는 학궁으로 취급되었지만 개성부가 옛 도성이었기 때문에 한양의 성균관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개성의 사대부들이 한양으로 옮겼으므로 개성의 성균관은 현실적으로 고관 자제들이 없어 고려 말의 그것과 같은 위상은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의 향교보다 매우 높은 위상을 지녔고, 개성의 중심 건물로 조선 초기 사대부들이 개성을 유람할 때 빠지지 않고 가보는 곳 중의 하나였다.

개성 고려박물관에 들어서면 수백 년 묶은 은행나무를 지나 내문으로 들어가면 동무·서무 그리고 대성전 건물까지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다. 명륜당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오르는데, 좌우측에 개성의 유물 유적 배치도와 송학도가 그려져 있다. 이곳에서 주목할 유물은 왕건릉에서 출토된 왕건상과 박연리 적조사 터의 철불, 그리고 고려의 금속활자 1점, 개성 고지도 1장과 대성전 계단 앞에 놓인 용머리 조각을 들 수 있다. 대성전에는 청자가 전시되어있으나, 눈에 필만큼 좋은 청자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전(顚)’이라 새겨진 금속활자 1점이 있다.

계성사(啓聖祠)로 생각되는 대성전 서쪽 뒤편 건물에는 적조사 철불과 이때금 공개되는 청동 왕건상이 있다. 적조사 철불(국보유적 제137호)은 개성시 박연리 적조사 터에 있던 것으로, 높이 1.6m이다. 고려박물관에 있으며, 석가여래좌상으로 철제불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청동 왕건상은 지난 1993년 왕건릉을 개수하던 중 봉분 북쪽 외곽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 청동좌상은 높이 1.6m 가량에 비녀를 꽂은 8개의 일월(日月)을 형상화한 보관을 쓰고 좌정한 모습이다. 성기까지 표현돼 있다. 원래는 옷을 입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토 당시 옷이 부식되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출토됐으며, 다리 부분이 부러져 다시 수리했다고 한다.

서무에는 한쪽에 민속용구가 전시되어 있으며, 주로 동경과 징 같은 청동제품과 장풍군에서 발굴된 석관이 전시되어 있다. 서무의 끝단에는 공민왕릉 내부를 모형으로 만들어놓았다. 성균관 서쪽 야외에는 개성 일대에서 수습된 개성유수영 누각과 불일사 5층탑, 현화사비와 7층탑, 홍국사 석탑, 개국사 석등, 홍왕리 탑과 미륵사 석불입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고적도보』 성균관 전경



유리원판 성균관 외삼문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일제엽서의 성균관 명륜당 전경

## Ⅶ. 천태종의 산실 영통사와 성거산의 으뜸 박연폭포와 관음사

영통사는 개성 나성 밖 동북쪽인 용흥리 오관산 남쪽에 있다. 이것은 고려 초에 창건된 절로서 고려전기 화엄종단의 대표적인 절이다. 영통사는 919년 태조 왕건이 세운 숭복원(崇福院)에서 시작하였다. 숭복원은 태조 왕건이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암자를 확장해 직접 지은 절이다. 영통사에는 세조(왕릉)·태조·문종·인종·명종 등 역대 왕들의 진영이 있었다. 1671년 김창협(金昌協)의 『유송경기(遊松京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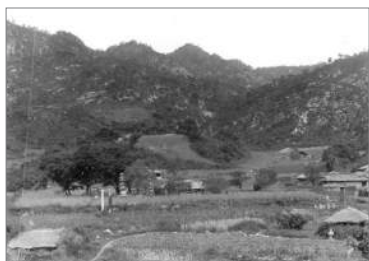
따르면, 절은 이미 불타고 12~13동의 부속건물과 마당의 석탑 3기, 의천의 대각국사비만 서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17세기 전에 쇠락했음을 알 수 있다.

절터에는 현재 국보급으로 지정된 영통사 5층탑, 영통사 서3층탑을 비롯하여 보물급으로 지정된 영통사 동3층탑, 영통사 대각국사비(大覺國師碑), 영통사 당간지주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3기의 석탑은 모두 고려초기의 것으로 5층탑을 가운데 놓고 좌우에 3층탑이 동서로 서있다. 또 보물급 36호로 지정된 영통사 대각국사비는 1125년(인종 3)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 비문은 인종의 지시로 김부식(金富軾)에 의해서 세워진 비 뒷면에는 의천의 제자 영근이 묘실과 비명을 기록한 사적기가 있고, 제자인 혜소가 문도들의 이름과 직명을 써서 새겼다. 이 비문을 통하여 화엄승려로서의 의천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제액과 함께 새겨진 가루다(迦樓羅) 문양 또한 걸작이다.

한편 의천의 비는 경상북도 칠곡군의 선봉사지에도 있는데, 선봉사 대각국사비는 7년 늦은 1132년에 세워졌다. 채충순(蔡忠純)이 쓴 이 비문에는 천태종 개창자로서의 의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영통사로 들어가는 입구의 좌측에는 당간지주, 중앙에는 대각국사비가 서 있었다. 대각국사비가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29동의 건물을 복원했는데, 건물 지붕에는 남측 천태종에서 보낸 기와가 덮여 있다. 일주문을 지나 처음 보이는 건물인 보광전을 중심으로, 주요 전각 6동이 1200여 평 대지 위에 세워져 있다. 보광전 앞에는 ‘영통사 5층석탑’이 있다. 5층석탑 양 옆으로 ‘동3층탑’과 ‘서3층탑’이 나란히 섰다. 보광전 뒤는 중각원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50여 차례의 강의가 진행된 기록이 있는 강당이다. 중각원 뒷 건물은 영통사의 전신인 승복원이다. 태조 왕건이 원당으로 사용한 곳이다. 이밖에 관음전의 별칭인 보조원과 고려왕들의 초상을 모신 영령원이 들어섰다.

영통사 동쪽의 개울 옆길로 오르면 경선원(敬仙院)이 있다. 대각국사 의천의 승탑이 모셔진 건물이다. 승탑은 발굴 당시 옥개석과 상대석, 기단부만 발견되었고, 현재 모습은 복측이 복원한 것이다. 영통사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은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



유리원판 영통사지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조선고적도보』 영통사지 대각국사비



『조선고적도보』 영통사지 중앙 오층탑과  
동·서 삼층탑

고려의 수도인 개경은 불교도시라 일컬을 정도로 수많은 절이 있었다. 현재 절 위치와 창건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34개나 되며, 고려시대 사찰 이름만도 127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북한에서 지정된 개성주변의 불교문화재는 개성 고려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보급으로 지정된 흥국사 탑(31), 개국사 석등(32), 불일사 5층탑(35), 탑동 3층탑(39), 현화사 비(40), 현화사 7층 탑(41)과 개성 인근 지역의 보물급으로 지정된 연복사 종(30), 관음사(33), 화장사 사리 탑(34), 영통사 동3층탑(35), 영통사 대각국사비(36), 영통사 당간지주(37), 영통사 5층 탑(37), 영통사 서3층탑(38), 현화사 당간지주(38), 광통보제선사비(국보유적 152호), 연복사 종(보물급 30호), 적조사 철불(국보유적 137호), 오룡사 법경대사비(국보유적 153호) 등 모두 19개이며, 이중 영통사와 관련된 것이 5개이고 현화사와 관련된 것이 3개이다. 또 형태로는 탑이 7개로 가장 많다. 이외에도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청동반자는 1966년 9월 개성 박연리에서 발굴된 것으로, 1101년에 제작된 것이다. 옆면에는 46자의 명문이 있는데, 내용은 왕의 수명 장수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것으로 개성의 북산 윤계사에서 무게 40근의 징을 만들어 바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동불입상 2구는 통일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며, 각기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와 연능리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청동범종 4개는 개성 부산동, 판문군 동창리, 장풍군 국화리, 승전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려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박연폭포는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있는 천마산(天磨山)과 성거산(聖居山) 사이에 있다. 높이 37m의 박연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로 알려져 있다. 박연(朴淵)은 폭포 위쪽에 있는 직경 8m 정도의 못이며, 이 박연에 담겼다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박연폭포이다. 박연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천마산 가까이 살며 통소 잘 불기로 소문난 박진사(朴進士)가 늙으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 폭포에 놀러 왔다가 못 속에 사는 용녀에게 홀려 혼인하여 살고 있었는데, 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폭포에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비탄에 빠져 자신도 떨어져 죽었다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 못을 ‘고모담(姑母潭)’이라 했으며 박씨 성을 따서 박연폭포라 불렀다고 한다.

박연은 고려 때 기청제(祈晴祭)를 올리는 다섯 곳의 하나이며, 이제현(李齊賢)이 송도팔경(松都八景)의 하나로 꼽았던 곳이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는 고모담이라는 큰 못이 있고 서쪽에는 용바위라고 하는 둥근 바위가 못 속에서 윗부분만 드러내고 있는데, 이 용바위에는 황진이가 폭포의 절경에 감탄해 머리채를 빗 삼아 썼다고 알려진 시가 새겨져 있다. 고모담 동쪽 언덕에는 폭포의 절경을 감상하기 좋은 범사정(泛斯亭)이 있다.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의 〈박연폭도(朴淵瀑圖)〉(개인소장 119.4×51.9cm)는 폭포 아래에는 연못인 고모담이 있고 그 기슭에 범사정이 있다. 박연폭포 절벽 위에는 대흥산성의 북문에 해당하는 문루(門樓)가 있고 그 성문으로 이르는 가파른 길이 나 있다. 폭포수는 화면을 압도하는 암벽 사이를

수직으로 가르며 쏟아져 내리고 이를 좌우에서 웅립하듯 감싸고 있는 거대한 암벽의 위압적인 모습이 웅장함을 더욱 고조시킨다. 폭포 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려는 겸재의 의도가 완벽하게 구현된 말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학산(鶴山) 윤제홍(尹濟弘, 1764~1840)의 『학산묵희첩(鶴山墨戲帖)』에도 〈박연폭포〉(26.2×20.7cm, 호암박물관 소장)가 있다. 이 작품은 박연폭과 범사정을 대상으로 두 남자가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를 구경하고 있다. 또한 작가 미상의 〈박연도〉(29.6×26.5cm, 개인소장)가 있는데, 박연폭포와 범사정을 배경으로 뒤에 성거산과 천마산을 원경으로 표현하였다.

관음사(국보유적 125호)는 개성시 산성리 천마산에 있으며, 박연폭포 뒷골짜기를 지나면 있다. 970년(광종 21)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이 굴 안에 관음보살상 2구를 놓고 ‘관음굴(觀音窟)’이라 한 데서 비롯하였다. 조선 개국 후 태조가 1393년(태조 2) 크게 확장하였으며, 1395년에는 태조가 수륙재(水陸齋)를 열기도 하였다. 현존 건물은 1646년(인조 24)에 중수한 것으로 대웅전과 승방, 높이는 4.77m의 7층탑과 관음전만 남아 있다. 대웅전은 1.7m의 기단 위에 정면 3칸(8.4m), 측면 3칸(6.61m)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절 건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겹처마를 낸 우진각지붕을 이었다. 건물의 앞면은 기둥 사이를 같게 하고, 옆면은 가운데 칸을 좌우 칸보다 넓게 했다. 공포는 바깥 7포, 안 9포로 되어 있으며, 모두 32개이다.

대웅전에는 아미타불 좌상, 관음보살 입상, 대세지보살 입상이 있다. 관음사 대리석관음보살좌상(국보유적 154호)은 높이 약 1.2m로 크지 않으나, 화려한 보관과 가슴에 드리운 영락과 천의 등이 마치 무른 나무로 조각한 듯 화려하고 섬세하여 고려 석조불상 가운데 대표작이다. 하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드리웠으며, 하나는 왼손 팔꿈치를 무릎 위에 세우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놓아 차이가 난다. 현재 전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으로 이동해 보존하고 있고, 후자는 관음굴에 그대로 있다. 또한 관음사 인근에 박연 삼불암 마애불이 있다. 박연폭포에서 대흥산성 북문으로 계곡을 따라 300m 정도 가다가 시내를 건너동쪽 방향의 성거산 쪽에 있는 운흥사터 뒤쪽 바위에 높이 5m의 마애 삼존불이 있다.



정선 박연폭포(17세기)



정선 박연폭포(17세기)



강세황(상), 윤제홍(하) 박연폭포(18세기)





『조선고적도보』 관음사 대웅전과 관음사 오층탑



관음사 대웅전 내부



관음사 대웅전 정면 중간문 창살

대흥산성(문화유물 126호)은 개성시 박연리에 위치한 성으로, 둘레 약 10.1km로, 일명 천마산성·성거산성이라고도 한다. 이 성은 고려시대 때 피난처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개성 북쪽 대흥산의 산성골을 감싸며 천마산, 청량봉, 인달봉, 성거산 등의 험준한 산봉우리를 연결하여 쌓은 석성이다. 천마산을 연결한 구간은 험한 절벽을 성벽으로 그대로 이용했고 능선과 평평한 구간에는 돌로 성벽을 쌓았다. 산 능선을 따라 쌓은 성벽은 바깥쪽에 쌓아 올리고, 평평하거나 계곡이 있는 곳에서는 양쪽에 쌓았다.

1676년(숙종 2)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이 다시 쌓았는데, 당시는 주위가 5,975보(步)이고 첩(堞)이 1,530개였다. 문은 북문·남문·동문·서문·소동문(小東門)·소서문(小西門) 등 6개가 있다. 또 절벽이 낮은 곳에는 성가퀴만을 쌓았으며 10개소에 치(雉)를 설치하였다. 위를 평평하게 만든 성가퀴가 15~30개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동쪽과 서쪽 벽에만 일부가 남아 있다. 원래 동·서·남·북 4개의 큰 성문과 동소문·서소문 등 6개의 사이문을 갖추었으나 현재는 북문의 축대와 문루만 그대로 남아 있다.

성안에는 본영인 제승당(制勝堂) 터의 돌기둥 8개가 남아 있다. 또한 군량미 3,887섬을 저장하였다는 북창(北倉)·동창(東倉)·내창(內倉)·승창의 터가 있으며, 서문 밖에도 5,960섬을 저장하였다는 태안창(泰安倉) 터가 남아 있다. 성 안에는 예로부터 3창(倉)이 있어 6개 읍(邑)이 조적(糶糴)을 분담하였는데, 북창(北倉)에는 금천(金川)·평산(平山)이, 내창(內倉)에는 풍덕(豐德)이, 동창(東倉)에는 장단(長湍)·파주(坡州)·적성(積城)이 속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는 금천과 장단만이 이를 맡아 조달하였다. 또, 대흥사(大興寺)에 승창(僧倉)이 있어 군기고·화약고 등을 두었으며, 각 창에는 모두 군량미를 비축하여 두었다. 성 내외에 제승당·영청당(永淸堂)·대승당(大乘堂)이 있고 수성장(守城將)은 중군이 겸임하였다. 현재 무기화약 저장한 창고 터와 장대 터도 남아 있고, 서문 밖 474m 고지에는 둘레 700m의 돌로 쌓은 망대가 있다.

또한 대흥산성 내에는 대흥사(大興寺)가 있다. 1359년에 창건되었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불타버린 것을 정조 때에 대흥산성 서문 밖에 있던 정자사(淨慈寺)의 재목을 가져다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송도기행첩』에 실린 16점 가운데 〈대흥사(大興寺)〉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대흥사는 대흥산성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암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흥사의 현존 건물은 1910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절 주변에는 수많은 암자 터들과 마애불들이 산재해 있다. 그밖에 운흥사·개성암 등의 절터와 크낙새의 보호구역이 있다.

## Ⅶ. 고려와 조선 사람들의 거리 남대문과 한옥거리

개성 북안동에 있는 남대문은 내성의 남문으로 1394년(태조 3) 내성의 완성과 함께 지어졌다. 여러 차례 수리 과정을 거쳐 1900년(고종 4)에 크게 고쳐 지었으나, 1950년 12월에 불타버렸고 1954년에 다시 복원하였다. 남대문에는 상원사 종, 봉덕사 종(에밀레종) 등과 함께 우리나라 5대 명종의 하나인 연복사(演福寺) 종(鐘)이 있다. 14톤이나 되는 종을 걸어놓기가 어려워 그대로 바닥에 놓아두었다. 연복사 종은 상단부에 ‘황제만세’ ‘국왕천추’라 쓰여 있으며, 하단부에는 이곡(李穀)이 찬(撰)한 긴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몸체는 여러 줄의 굵은 선으로 아래 위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으며, 여기에는 명문을 비롯하여 불상·불경, 여러 가지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특히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종의 구경 테두리에는 물결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물고기·용·봉황·기린·게 등을 새겼으며, 그 위에 종을 만든 연대와 내력을 써놓았다. 명문은 당대의 명신 이곡이 지었으며, 성사달(成士達)이 썼다. 글씨는 자경 2cm 정도의 해서이다. 명문 말미의 ‘병술(丙戌)’이라는 간지는 고려 충목왕 2년(1346)으로 종의 주조연대를 밝혀주고 있다. 명문에는 1346년(충목 2) 원나라 순종(順宗)의 명을 받아 자정원사(資正院使) 강금강(姜金剛)과 좌장고부사(左藏庫副使) 신예(辛裔)가 금강산 장안사(長安寺)에 와서 범종을 만들고, 돌아가는 길에 고려 충목왕과 덕녕공주의 요청에 의하여 원나라 종장이 연복사의 종을 주조하게 된 것이라 쓰여 있다. 1563년(명종 18) 연복사가 불에 타는 바람에 이리로 옮겨진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 개성 사람들에게는 ‘시계’ 구실을 했다. 27곳의 총탄 자국은 6·25 동란의 상흔을 느끼게 한다.

연복사는 비보사찰 중 하나로 그래서 절 안에 세 못과 아홉 우물(三池九井)을 파고 그 남쪽에 5층탑을 세워 풍수에 응하게 했다는 기록이 1393년(태조 2) 권근(權近)이 지은 연복사 비문에 나와 있다. ‘광통보제사(廣通普濟寺)’ 또는 ‘보제사’라고도 하였으며, 크다고 하여 ‘대사(大寺)’ 또는 ‘당사(唐寺)’라고도 하였다.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1037년(정종 3)에 정종이 행차한 사실이 있음을 보아 그 전대에 이미 절이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복사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고려사』의 충숙왕 즉위년(1313)의 일인데 어떻게 해서 명칭이 변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개성을 유람할 때 남대문 밖에 있는 연복사에 가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종도 종이거니와, 200척(60m)의 5층 누각이 있어서 그곳에 올라 도성을 굽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복사는 개성시 남산동에 위치한 절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이 절은 사액(寺額)을 관도(官道) 남향에 걸었고, 중문에는 ‘신통지문(神通之門)’

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정전(正殿)은 나한보전(羅漢寶殿)으로서 극히 웅장하여 왕실보다 더하였고, 그 안에는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보현보살의 삼존불을 중심에 두고 주위에는 법당을 배치하였으며, 옆으로는 승려들의 거주처가 있었다고 한다.

연복사는 고려 후기 국왕들에 의해 연등불사와 문수회(文殊會) 및 담선회(談禪會)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국가적 불교 행사를 주도하고 정치적·사상적 이데올로기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곳이었다. 공민왕대에는 신돈(辛旽)이 문수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권력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공민왕은 재위 당시 이 절의 5층탑을 다시 세우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390년(공양왕 2) 조성도감(造成都監)을 두고, 7월에 연복사 인근의 민가 30여 호를 철거하고 담장을 넓히고 연못 3개와 우물 9개를 조성하였다. 이듬해 공양왕의 명으로 흥복도감(興福都監)의 포(布) 2,000필을 내어 연복사의 탑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며, 경기·양광도민들로 하여금 목재 5천 그루를 실어다가 천규(天珪) 등이 공장(工匠)을 모집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양왕 3년(1391) 5월에 윤회종(尹會宗)·유정현(柳廷顯)·정도전(鄭道傳)·김자수(金子粹) 등의 상소를 받고 잠시 중지되었으나, 태조 2년(1393) 태조가 단청을 마치고 탑에 부처 사리를 봉안하고, 비로자나불의 탱화를 봉안하였다. 이 사찰은 고려 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사찰이었다. 차천로(車天輅)에 따르면, 연복사는 1563년(명종 18) 불타다고 한다. 1394년 권근이 지은 중창비는 비신은 없어지고 귀부(龜趺)만 남아 있었으나, 일제 때 반출되어 용산에 보관되었다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발견되었다(용산구 한강로 4가 40-1010 철도회관 화단).

개성 한옥이 있는 개성한옥보전거리는 개성 남대문에서 북부거리를 따라 1km 구간에 있는 한옥 300여 채가 있는 지역이다. 1975년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의 문화와 풍습들을 잘 보존해야겠다”는 지시를 내리자, 이곳을 “보전거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개성 주민들의 주택을 여관으로 개조하였다. 1백여 개의 객실을 갖춘 한옥 민속여관 20동을 민속관광지로 바꾸었다. 그중 개성 민속여관은 선죽동에 있으며, 조선 말기에 지어진 많은 전통한옥들과 봉사기관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1593년 1월에 개성 부근을 정찰하고 온 이덕형(李德馨)의 보고한 “신이 이달 21일에 개성부에 들어가 살펴보니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셨던) 목청전은 이미 철거되었으며, 아름드리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 통곡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들은 거의 모두 타버렸으며 여염의 집도 남아 있는 것이 18, 19채였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 한옥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임란 당시 관아들은 거의 모두 타버렸으며 여염의 집도 남아 있는 것이 18, 19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측에서도 임란 이전 가옥은 10여 채 정도도 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개성 답사 당시 전언에 따르면, 300여 채 가운데 200년 정도 된 가옥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다. 대체로 19세기부터 일제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개성이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 장소였다는 점, 그리고 일찍이 보전지구로 정했다는 점, 나아가 개발이 더디어졌다는 점이다.



강세황의 송도시가 전경



구한말 엽서의 남대문 전경



유리원판의 남대문 전경(국립중앙박물관)



구한말 엽서의 1910년대 후반 남대가 전경



1920년대의 남대가 전경



일제엽서의 1920년대의 남대가 전경

## VIII. 맺음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다.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발굴, 북한지역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남북공동노력, 각종 전시회, 불교문화재 복원, 남북공동 만월대 발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남북이 역사적, 민족적으로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했고,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화유산 교류협력은 통일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남북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적지 않아 분단현실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도 많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민족공동자산인 북한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문화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간 이루어진 10.4 선언에 따른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개최가 합의됨에 따라 10.4선언의 이행이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문화재 분야의 남북협력은 다른 분야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될 것이다.

또한 2014년 10월 24일,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에서 역사유적유물을 원상대로 잘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는 교시와 함께 민족문화유산들과 역사교양거점들을 통해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심어줄 것, 민족유산 보호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여



기에서 특히 주목할 바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남북학술교류를 포함한 대외협력을 강조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은 통일부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역할까지 담당해 왔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사실상 문화재청과 같이 문화재 자체에 대한 업무를 특화하여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왔다. 물론 문화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재청 역시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증가와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금과 같은 자문 형태의 검토보다는 문화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문화재청 차원의 심의·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은 단지 남북간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 내부의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는 사업 주체(지자체 및 발굴기관)들 사이의 발생 가능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문화재와 관련된 신규사업(발굴 등)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해당분야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와 각 사업주체간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관련 정부 부처인 통일부와 문화재청 간의 공식적인 ‘업무협약체’ 구성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과 정부(중앙, 지방)를 아우르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남북문화재 교류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남북교류사업의 대상 선정과 예산 편성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성과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로 향후 남북간의 문화재 분야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문화재분야 남북협력사업 개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고려 궁성에 대한 남북공동발굴 조사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남과 북이 함께 시작한 장기적인 사업이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조사와 보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유적이다.

또한 향후 개성관광(답사)의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유적의 특성상 발굴조사와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선 성균관의 복구·복원, 공민왕릉의 보존과 벽화 관람시설 설치, 개풍군에 위치한 조선 왕릉인 후릉(厚陵 : 조선 정종과 정안왕후 김씨)과 제릉(齊陵 : 태조 이성계의 비 신의왕후 한씨), 그리고 40년간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 고려 왕릉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등재 등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다양한 현지 시설을 활용, 북한 내 문화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 이후 개성지역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소재하는 문화재의 종합관리와 보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건축 분야에서의 조사와 보존·복원, 다양한 재질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다양한 최신 기법, 3D 스캐너를 활용한 문화재 정밀 개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과 기술 전수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대한 남북 공통의 인식을 강화하여 앞으로 남북한 공동의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개성지역의 경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유적과 유물의 현황을 공개하고,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개성지역 일대의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통해 지정현황 및 지정표석을 비롯한 지정문화재 주변경관에 대한 개선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성 내 고려 왕릉 발굴조사 및 유적 답사, 수창궁 등 고려 왕궁 터 발굴조사, 나성 등 고려 성곽 터 공동 발굴조사, 홍왕사 등 고려시대 사찰에 대한 조사 및 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제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개성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 보존 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관련 남북공동 학술대회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 교환과 논의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제안들은 ‘개성역사유적지구 보존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연구 지원센터’도 개성공단내에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개성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연구 지원센터’에서는 개성지역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수·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문화재에 대한 보다 발전된 연구성과를 축적해 개성지역 문화재 보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험은 또한 ‘남북DMZ역사유적 공동위원회’ 설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개성 고려 궁성에서 발굴 수습된 유물 가운데, 몇몇은 아직 그 성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유구의 건물명 뿐만 아니라 시기, 나아가 이형 원형(異形圓形) 청자(높이 65cm, 지름은 22cm)와 금속활자의 경우는 그 용도조차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관련 전공자의 지속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자료의 해석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모여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겠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는 남북관계처럼 만월대 발굴과 학술교류도 멈추었다. 앞으로 언젠가 다시 남북관계가 발전 지속되고, 발굴조사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다양한 고려 궁성 만월대 문화유산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이제 개성 주변의 무너진 탑과 폐허로 변한 사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왕릉들, 언제 변용했는지 모르는 원형을 잃은 건축물들, 지금 남아있는 자료 속에 고스란히 복원을 기다리는 개성의 역사성과 위용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일제(日帝)의 야만성 때문에 이산의 아픔을 가진 현화사 석등과 남계원 탑, 경천사 13층탑처럼(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리고 무관심 속에 100년 만에 소재가 파악된 연복사중창비(서울 용산 철도회관 앞 화단 위치)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

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그 옛날 세계인이 고려를 찾아 고려인(Korean)과 개성 사람처럼 개성의 유적을 두루 누빌 수 있는 날을 고대해본다.

##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1915~1935 『조선고적도보』 高麗時代(1~4)  
高裕燮, 1945 『松都古蹟』; 1977 『松都의 古蹟』, 서울: 열화당 재간행  
權相老, 1979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인철, 2003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김진석·전룡철, 2002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  
박종진, 2022 『개경-고려왕조의 수도』 놀와  
장경희, 2010 『고려왕릉』 예맥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려의 황도 개경』 장작과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07 『서울 개경의 생활사』 휴머니스트
- 박종진, 2000 「고려시기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 현실』 38  
박종진, 2001 「개성의 문화재」 『역사비평』 54  
박종진, 2003 「고려전기 개경의 물과 생활」 『인문과학』 10  
변광석·신나경, 2010 「조선시대 개성의 演福寺를 통해본 지역성 탐색」 『역사와 담론』 56  
한희숙, 2012 「조선 초기 개성의 경관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62  
한희숙, 2013 「조선시대 개성의 목청전(穆淸殿) 과 그 인식」 『역사와 담론』 65  
홍영의, 1998 「고려 수도 개경의 위상」 『역사비평』 45, 역사문제연구소  
홍영의, 2006 「역사기행 천년의 역사도시 개성 답사기」 『역사비평』 74  
홍영의, 2007 「천년의 역사도시, 고려 수도 개경의 위상」 『고고학』 6권 1호  
홍영의,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홍영의, 2011 「조선후기 회화와 지도에 기록된 개성의 유적과 경관」 『역사와 현실』 79  
홍영의, 2013 「고려시대 개경의 사찰과 남겨진 유물」 『북한의 문화유산』 경인문화사  
홍영의, 2013 「개성의 남겨진 문화유적과 현황」 『개성의 문화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황인규, 1999 「麗末鮮初 演福寺 塔의 重營과 落成」 『역사와교육』 7·8  
齋藤忠, 2000 「開城市靈通寺跡の大覺國師碑の現状について-付大覺國師の墓域の新発見-」  
『朝鮮學報』 106·107, 朝鮮學會





인천시민통일아카데미 X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25기 박물관대학

# 마주하는 우리역사, 남북한의 한국사 인식

발 행 일 2023년 8월

발 행 처 인천문화재단 평화교류사업단 032)455-717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032)440-6732

인 쇄 **DesignhadaMK**